

**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해를 아끼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 받으며 어린이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님의 능력과 재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장년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73호 2012년 2월 25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물만 공급해도 유아사망률 50% 감소

### CT, 가난한 사람 돕는 10가지 저비용 고효율 방법 소개

얼마 전 세계식량기구(WFP)는 전 세계 영양 부족 인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절박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세계의 빈곤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에 교회공동체나 비영리 구조단체들은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하며,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동정을 갖고 실제로 돕는 것은 바로 크리스천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이자,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한결같은 주제이다(신15:4; 전14:31; 갈2:10; 약2:2-6). 또한 교회를 통해 보면 교회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

을 돕는데 앞장을 서왔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아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크리스천리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2월 호 커버스토리로 지구촌에 불어 닥친 경제 침체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10가지 성공적인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Cost-Effective Compassion: The 10 Most Popular Strategies For Helping the Poor). 이 전략들은 10점을 만점으로 교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비영리 구조단체원들이 실제로 평가를 내린 것들이다.

1. 시골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준다 (평가: 8.3)



지구촌 제 1의 굶주림 해소책은 물 공급이다

1년에만 백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간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놀라게도 유아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물이 생명이다"는 말이 있듯이, 청결한 물이 줄 수 있는 혜택들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에 따르면 시골에 있는 아동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유아 사망률이 50%에서 35%로 감소되며, 그 비용은 1인당 1년에 10달러 정도 소요된다. 극빈국가들에서의 유아 사망률은 1000명의 신생아 중 60-110명이 사망하고 있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비용은 1년에 180-400달러 정도이다. 특별히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저비용 대비 고효율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이다.

따라서 많은 선교 구조 단체들이 시골 마을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프로그램을 펼치며 온라인을 통해 성금이나 기금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우물을 파거나 플라스틱 수도관을 땅에 묻고 펌프를 마련해주고 있다.

Living Water International, Life Water.

org, Global Water. Org, The WaterProject. org, Flowing Streams Ministries.

2. 어린아이들에게서 기생충을 없애준다 (평점: 7.8)

현재 내부 장기에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 중 4명 중 1명꼴로 만성적인 건강 약화와 질병 그리고 학습장애까지 일으킨다. 알벤다졸(Albendazole)이나 구충제들은 아주 효과적이며 그다지 비싸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는 적격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세계의 화약과 중독, 이번에는 시리아

**7면**

특별기고 김기원 목사

**13면**

이슬람-기독교 갈등 전호진 박사

**13면**

LA서 홀리스 사역했던 우연식 목사 재이주

## 릭 샌토럼 약진... 보수는 살아 있다!

미 언론, 공화당 경선 보수진영 결집 '샌토럼 돌풍' 보도



릭 샌토럼      미트 롬니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공화당 대선후보를 뽑는 미주리, 미네소타, 콜로라도 3개 주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첫 경선인 아이오와 주 코커스에서 돌풍을 일으킨 뒤 추종했던 샌토럼 전 의원이 다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대세론이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대안론에는 제동이 걸렸다.

샌토럼 전 의원은 미주리 주 프라이머리에서 55%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롬니와 론 폴 하원의원은 각각 25%와 12%를 얻었다. 미네소타 주 코커스에서는 샌토럼 45%, 폴 27%, 롬니 17% 순이었다. 콜로라도 주 코커스에서도 샌토럼은 40%로 1위를 차지했다. 샌토럼은 "공화당 보수주의는 미국에 살아 있다"며 "롬니는 오바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롬니를 공격해 '롬니 대항마'란 이미지를 키우려는 것이다.

따라서 28일 실시되는 미시건 주에서마져 승리하게 되면 3월 6일 10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게 되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미 언론은 관측한다. 그러나 공화당 경선에서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연대로 샌토럼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싸울 후보가 된다고 해도 그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공화당에서 샌토럼 돌풍은 대단하다. 당초 미네소타 주 한 곳에서만 승리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콜로라도 주와 미주리 주에서도 리크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샌토럼 후보는 미네소타의 경우 45%의 득표율로 2위 론 폴 의원의 27%보다 크게 앞섰고,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17%로 3위에 그쳤다. 또한 롬니의 승리가 확실시됐던 콜로라도 역시 샌토럼은 40%의 지지율을 얻어 롬니의 35%를 앞질렀다. 마지막으로 미주리 주 예비선거에서도 샌토럼은 45%의 득표율로 롬니의 25% 득표율을 20% 차이로 따돌렸다. 진정한 보수주의자임을 자처해 온

샌토럼 전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승리한 뒤 미국에 보수주의는 살아있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샌토럼 후보는 자신의 승리는 공화당, 특히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 티파티의 숨은 공로를 치하하고 미국 땅에서 계속 자유의 목소리를 이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샌토럼이 세 곳 모두에서 한꺼번에 승리를 거둔 뒤 롬니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롬니는 일단 샌토럼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 뒤 자신은 여전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3면으로 계속)

## 형제교회 컨퍼런스 HYUNGJAE CHURCH CONFERENCE 2012

새가족 · 공동체 · 전도 · 양육 · 중보기도

위대한 교회로의 비상은 믿음의 본질에서 시작됩니다.

**주강사**

권준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목사)  
 노창수목사 (워싱턴중앙로교회 담임목사)  
 정대성목사 (뉴라이프선교회 담임목사)

위대한 교회로의 비상은

GOOD TO GREAT 5.22~24

우리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 기 간: 2012. 5. 22(화) -24(목)
- 장 소: 시애틀 형제교회
- 대 상: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
- 접 수: 선착순150명 (3월 15일부터 Online등록)
- 등록비: \$100.00
- 숙 박: 민박(무료), 호텔(유료/신청자에 한해)
- 문 의: 시애틀 형제교회 (Tel: 425.488.1004)
- 성환철 전도사 (이메일: johnseong@hyungjae.org)
- 홈페이지: www.hyungjae.org.





시론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양준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마태복음 22장 34-40절에는 어느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은 말보다는 삶을 통하여 배우고 실천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정들의 식탁을 조사했습니다...

첫째는, 연료보급소입니다. 모든 식구가 모여서 별로 말도 없이 자기 자기 먹을 것만 먹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다섯 번째 식탁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상을 중심으로 다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후...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많은 수일, 좋은 성격, 큰 집 등을 사랑하기 전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위하고 한 몸과 같이 아끼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 이번에는 시리아!

인디펜던트, ‘아랍의 봄’, ‘이슬람 종파 간 갈등’ 예정된 사건으로 해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사태는 독재에 맞선 시민혁명의 성격 외에도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중동 지역 내부에서 벌어진 이란 대 반(反)이란 세력 간의 싸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종파주의적인 성격의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작년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 사태는 과연 중동에 민주주의가 개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현재 이 집처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정치계 약진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으로 인한 내전과 이로 인한 국제전의 발발 가능성인가? 라는 전혀 상반된 관측이 전개됐다.

현재 지구촌 언론은 시리아내전이 이란과 미국과 NATO측과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될 정도로 각종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영국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보도가 객관적이다.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알라위파와 반대하는 수니파간의 내전에서 먼저 현 알아사드 정권은 2014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리아에서의 민주주의란 결국 종파 간 권력 배분 때문이다.

시리아, 흡수에서는 수니파와 알라위파(시아파)의 하위분파. 알아사드 정권의 기반이 서로 상대 종파에 대한 죽음의 습격작전을 벌이고 있다. 수니파들은 자신들이 정부군의 포격에 대항 학살됐다고 하고, 알라위파는 수니파가 더 심한 포화를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는 과거에도 단일한 국가였던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종파간의 갈등 이전에 현재 시리아 사태를 관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3가지의 위기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리아 사



세계 언론은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종파주의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알아사드 정권은 퇴진할 수가 없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는 비교적 조용한 이웃이며 안정화된 석과 같은 존재였다. 시리아가 레바논의 무장정치조직 헤즈볼라를 돕고 있는 건 맞지만 헤즈볼라 또한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내왔다. 만약 알아사드가 몰락한다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레바논을 휘저어 헤즈볼라의 급진주의가 새로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스라엘에게 알아사드의 몰락이란 ‘잃을 것은 많되 얻을 것은 많지 않은’ 사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좋은 말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조심하고 있다. 지난 11일자 워싱턴포스트의 머리가사 제목은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에게는 시리아에 대한 ‘좋은 옵션’이 없다”였다. 기사는 미국 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수니파 득세 민주화 의미 불구 알라위파 퇴출되면 기독교 피해 알아사드 정권 비난·내전 계속돼도 알아사드 퇴진 바라지 않아

태는 잔혹하고 부패한 경찰국가에 대해 해 지난해 3월 시작된 대중 봉기다. 남부 데라에서 청소년들이 반정부 슬로건을 건물 벽에 그렸다는 이유로 당국이 고문을 자행한 사건이 봉기의 시발점이었다.

시리아 정부는 엄청난 판단 실수를 했다. 정부가 가혹하게 탄압하면 잠재적 시위자들이 겁을 먹고 침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시위대를 더욱 자극하는 효과만을 낳은 것이다. 독재정권에 대한 증오와 학살에 대한 분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리아 국민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민의 용기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싸움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더 결합돼 있다. 즉 시리아 사태는 그간 긴장이 고조돼 온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 갈등의 일부이며, 또한 33년 동안 계속된 이란과 그 적들 간 분쟁의 일부이기도

일로 치부하고 있지만 시리아는 권력 자체가 종파에 기반을 두고 배분돼 있는 나라다. 과거 이라크, 레바논, 아일랜드에서 그랬듯 말이다. 반정부 세력이 종파주의의 반대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시리아에서의 민주주의란 알라위파가 권력을 잃고 수니파가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수니파가 2400만 시리아 인구의 3/4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행히도 알아사드 정부의 가장 확고한 반대파들은 종교 공동체 간의 공평한 권력분배보다 더 근본주의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 수니파가 압도적 다수인 봉기 중심지에서 알라위파 기독교도들은 제거돼야 할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구촌 언론이 이처럼 시리아 내전에 복합적 함수를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주변국들의 이해관

먼저 사우디는 알아사드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원하긴 하지만 그를 대신할 정부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사우디는 알아사드 이후의 (아마 거의 무정부 상태인) 시리아에서 알카에다가 자리 잡을 것이며, 알카에다 제1의 목표가 사우디 정권 타도라는 것을 안다.

이스라엘은 이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시리아의 바트당 정권이 친(親)이란 국가인 것도 맞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결국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큰 소리로 나오든, 또 내전이 얼마나 추악하든 간에 실제로 알아사드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사드 정권은 유지된다는 것이 지구촌 언론의 관측이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 상태는 또 다시 세계의 화약고가 바로 중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봄학기: 2012년 2월 13일~5월 25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Full-Time 사역자 청빙

올바니 사랑의교회 (Albany, New York) 에서 English Ministry와 Youth Group 사역을 위해 헌신할 Full-Time 사역자를 찾습니다.

[자격요건]

- 1. 1.5세이거나 2세로서 영어권 사역 (설교 및 양육)에 소명과 열정이 있으신 분 2.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으며 학생들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신 분 3. 인가된 신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하신 분

관심있으신 분들은 4월 첫째 주까지 아래 이메일주소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eunjoo.han@gmail.com

올바니 사랑의교회

담임 박성일 목사

Albany Sarang Fellowship Church 410 23rd. St. Watervliet, NY 12189 www.albanyсарang.net





# 물만 공급해도 유아사망률 50% 감소

(1면에서 계속)  
버클리나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기생충 약을 먹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취학 아동들의 결석률을 최고 25%까지 감소시키며 비용은 고작해야 한 명의 아동당 50센트에 불과하다:

Compassion.com, Children International, ChildFund.org, Worldvision.org.

5. 장작을 사용하는 스토브 제공 (평점: 6.0)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구촌 인구 중 50%는 아직까지도 생물적 (biomass) 연료인 나무나 동물의 변을 사용하여 보온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적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산림의 황폐화를

WorldStove.com.

6. 소액 금융 지원 (평점: 4.2)

개발도상국가에 있어 소액금융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1천9백만 명이나 되는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이 소액금융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수치는 15년 전 1백35만 명에 비하면 10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특히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긴요한 재정적 현열 장치로 1인 당 25달러에서부터 시작한다:

Kiva.org, Opportunity International, VisionFund(World Vision).

겪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선천적인 사소한 장애들을 교정하여 희망의 불씨를 지킬 수 있게 된다:

SmileTrain.org, OperationSmile.org, MercyShips.org.

8. 농장용 가축 기부 (평점: 3.8)

젖소나 염소 그리고 닭과 같은 가축을 개발도상국 시골에 사는 가구에 기부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방법이다. 양은 70달러, 염소는 85달러 정도로 우유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최상의 선물이이다:

Heifer.org, SamaritansPurse.org, World Vision's Gift Catalogue.

# 새소망 칼럼

##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 마지막으로 아셀지파에게 아셀(Asher, 기쁨, 행복이란 뜻)이란 그 이름의 뜻대로 부요해지고, 명예롭게 되며 강해지는 동시에 화평을 누리도록 축복을 하였다(신33:24-29). 새해에는 우리들도 부요해지고 명예롭게 되며 강해지고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 바란다. 또한 가난한 자는 다른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강한 자,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과 섬김의 복을 받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는 강한 자, 부한 자가 되기 바란다. 옛날 독일의 대왕이었던 프리드리히가 하루는 사복을 입고 공원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가슴을 쪽 펴고 힘차게 천천히 위엄있게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그 늙름함에 이끌려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그 노인은 "왕자요!"라고 대답했다. 깜짝 놀란 대왕은 "어느 나라의 왕자입니까?"라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는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요!"라고 대답하였다. 천지의 주재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창14:19)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는 모두 자신이 왕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늙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시144:12-15)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가정적 축복을 받아 아들딸이 훌륭하게 되고, 재산의 복을 받아 공간에는 백곡이 빼곡히 쌓여있고, 들에는 양 떼가 번성하여 수천, 수만이 덮여있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침로를 당하거나 침로를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평화의 복을 누리며, 수소는 무겁게 짐을 싣고 다니는데 그것은 풍부한 추수를 했기 때문이며 교역이 확대된 결과임을 암시하고 있다.

파랑새 증후군(Bluebird Syndrome)이란 말이 있다. 벨기에의 동화극 "파랑새"(L'oiseau bleu)의 주인공처럼, 장래의 행복만을 꿈꾸며 현재 할 일에는 정열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행복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가 아닌 미래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파랑새 증후군"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증후군(Syndrom)이란 병 같지도 않은 병, 일종의 가짜 전염병 같은 것이다. 이 병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아 보려고 세상을 기웃거리면 정신적 영역으로 파랑새 증후군이 오게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행복할 사람(신33:29)들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선언과 같은 말이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여호와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해방된 행복한 사람들이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 생활이 즐거워도 국가가 막강한 국방력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백성들의 그 행복이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항상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 더구나 마귀와 세상에 지는 것과 악과 불의와 싸워서 지는 것은 더욱 그렇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나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험기와 못된 습관과 싸워 이겨야 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시어 대적들이 복종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신33:29).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것이다. 이제는 먼 곳의 파랑새를 찾듯이 장래의 행복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행복을 붙잡아 누리게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부귀 명예 권세보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 중 20%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자는 바로 말라리아이다. 45초마다 말라리아로 한 생명이 죽는다. 깨끗한 물 공급, 구충약 제공과 마찬가지로 말라리아를 막는 방법은 저비용에 비해서 고효율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모기장을 마련해준다 (평점: 7.3)

HisNets.org, NetsForLifeAfrica.org, NothingButNets.Net.

4. 결연아동 후원하기 (평점: 6.9)

국빈국가들에 대한 도움 중 '결연 아동 후원'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후원자들은 보통 한 달에 25-40달러 정도를 후원하고 이 비용은 등록금, 교복, 보험 또는 영적 멘토십 등에 사용된다. 개발도상국에 있어 결연 아동 후원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고,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 영감 그리고 삶의 목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부른다. 즉 1년 동안에만 5백8십만 헥타르의 열대림을 황폐케 한다. 그리고 집안 내부로 들어온 연기로 인해 해마다 1백6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따라서 150달러 정도의 스토브 (Onil wood-burning stove)를 제공하고, 굴뚝을 설치해 주지만 하면 연료가 되는 나무 양을 줄일 수 있고 연기로 인한 기침, 폐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HelpsIntl.org, StoveTec.net.

7. 연청이 교정수술 지원 (평점: 3.9)

개발도상국가들에 사는 17만 명의 아동들은 말을 정상적으로 못하며 살고 있다. 소위 "연청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대화에서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수술을 통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따라서 백내장, 사팔뜨기 등 역시 수술을 통해 교정이 되기에, 차별이나 장애우로서의 고충을

이외에도 공정하게 거래된 커피 마시기(평점: 1.9)와 어린이에게 컴퓨터 제공하기(평점: 1.8) 등이 바로 현재 지구촌 개발도상국가들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바로 생명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절한 전략들이다.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인 것이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질을 고양시키며 동시에 가난한 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행하는 기부는 동정과 자선이라기보다는 '윤리'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펼치는 자선과 동정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파악해야만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비용대비 고효율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자.

# 릭 샌토럼 약진...보수는 살아 있다!

(1면에서 계속)  
샌토럼 돌풍의 진양지는 바로 샌토럼 후보가 계속해서 보수주의자다운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꾸준히 정통 보수 이미지

되는 곳에서는 선거 운동을 멈추기도 했었고, 김그리치는 아예 이곳 경선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반면에 샌토럼은 지지 대의원을 할당하지 않는 미주리

수적이 아니라 '옴' 후보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다운 보수주의 정치인을 동경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샌토럼의 정치적 입장이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롬니가 여전히 후보 경선과 본선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에서 자신을 '지독한(severely) 보수적 주지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완개혁의 모델이 된 펜실베이니아 공공의료보완 제도를 만드는 등 대표적인 중도 주지사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폴 크루거면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롬니는 그의 공직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층의 환상에 영합하기 위한 공상과 조작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샌토럼은 어느덧 공화당 내에서 그동안 선두를 유지해온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미시간 주 경선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시간은 롬니의 부친인 조지 롬니가 주지사를 지냈던 곳이어서 일찌감치 롬니의 우세가 예상된다.

(10면으로 계속)

## 유권자들, 보수주의자다운 보수주의 정치인 동경 롬니 이겨도 "본선 경쟁력" 구비할 지는 미지수

를 강조했던 것이 이번 중부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또 롬니나 오바마 모두 보수주의와의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경선을 위해 다른 후보들보다 유독 열심히 뛰어 다녔다. 롬니의 경우 자신의 승리가 예상

주 예비선거 현장까지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다.

현재 선두로 나선 샌토럼에 대해서 공화당 진영의 응답자 60% 이상은 그의 정치철학이 너무 보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이 아니라고 '옳다'고 답한다. 강경보수로 평가되는 샌토럼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보

로 보는 등 스스로 모순적 입장에 빠졌다.

따라서 공화당의 이런 이념적 분열과 혼돈 때문에 중도적 입장이었던 롬니 역시 자신의 당초 업적들을 부정하면서 보수 지지층에 다가가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한 보수적 정치집회



# 글로벌 리폼드신학대학원 (GRS)

## Global Reformed Seminary Inaugural Ceremony



**모시는 글**  
(총장: Dr. Allen D. Curry)

그동안 복미주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신학 분야의 최고 과정을 수탁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힘입어 이번에 글로벌 리폼드신학대학원 (Global Reformed Seminary: GRS)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GRS는 복미주에서, 한국 교회가 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학문과 실천을 고루 갖춘 미국 및 한국의 저명한 신학교수들이 주로 박사 과정(Ph.D, Th.D, D.Min)과 석사(MA) 과정을 교수하며, 동시에 한국 개혁주의 목회학 박사 등분들이 세계 약 20여 선교지 신학교의 교수 사역을 지원하는, 글로벌 유형의 새로운 신학교 중심 최고 신학교육 기관입니다.

이 GRS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의 재형성과 기독교 신학을 주도해 나아가고, 올바르게 참신하며 효율적인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지도자 양성에 확고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 그리고 풍부한 사역 경험을 갖춘 GRS 교수진들은, 학생들이 바른 진리,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 글로벌 선교 비전,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도록 교육하여,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르고 힘있게 섬기도록 도울 것입니다.

### 개교 감사 예배 안내

- 일 시: 2012년 2월 27일(월) 오후 5:00
- 장 소: 애틀란타 제일장로교회
- 개교 기념 예배 설교: Dr. Frank M. Barker, Jr.

Being transformed, transform the world for Christ!



**Frank M. Barker, Jr. 목사**  
(Briarwood 장로교회 원로 목사, PCA)  
(전 Birmingham 신학대학원 교장)  
(GRS 명예 원장)

GRS Main Campus: 애틀란타 제일장로교회(서삼정 목사 시무)

GRS Academic Programs: Ph.D/Intercultural Studies, Th.D/Intercultural Ministries, D.Min/Intercultural Ministries MA/Intercultural Education, MA/Intercultural Leadership

GRS 교수진: Dr. Allen D. Curry (전 RTS 교육학, 실천신학 교수), Dr. Samuel H. Larsen (RTS 선교학 교수, 국제 박사 과정 부총장), Dr. Howard Eyrich (버밍햄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교수), Dr. Changsup Shim (전 총신대학 교수, 역사신학), Dr. Eunsoo Kim (전 RTS 선교학 부교수, 한국 목회학 박사 과정 디렉터) 등,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10여명의 교수들이 강의합니다.

GRS 조직: 명예 총장: 정필도 박사(Dr. Pildo Joung, 수영로교회 원로목사)  
총장: 알렌 커리 박사(Dr. Allen D. Curry)  
부총장: 심창섭 박사(Dr. Changsup Shim)  
특별자문위원장: 서삼정 박사(Dr. Samjung Suh)  
명예 원장: 프랭크 M. 바커 박사(Dr. Frank M. Barker, Jr.)  
원장: 김은수 박사(Dr. Eunsoo Kim)  
이사장: 토마스 쉘리 박사(Dr. R. Thomas Cheely, 브라이언우드장로교회 선교 목사)

\*GRS의 영어 및 한국어 모든 과정은 Intensive Course로 진행되며, 여러 목회자들 및 선교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GRS 애틀란타 본교와 GRS의 여러 해외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770-827-9689, 770-781-56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globalekim@gmail.com](mailto:globalekim@gmail.com)

- 원 장 -  
**Dr. Eunsoo Kim**



#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참 행복

가장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다기에 어느 잡지 기자가 찾아가 노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가장 행복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기사는 또 그 다음에 행복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사는 집요하게 그 다음은,

다음은 하며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계속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 아들이 취직을 해서 선물을 사왔을 때 등등 끊임없는 질문에 이 노부부는 계속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사는 이렇게 노부부의 대답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내가 찾던 가장 행복한 분들이 맞는 것 같습

니다. 보통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데 말입니다." 또 행복을 밖의 큰일들이 아닌 가정에서부터 찾아가는 두 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현대인의 행복지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만 간다고 합니다. 개인적, 가정적, 단체적인 만족감도 하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은 물론 유명 프로그램 PD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접하는 우리를 더욱 난감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하여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을 바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다 바쳐서 추구했던 행복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북부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도승 한 사람이 찾

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밥만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다네. 이 다이아몬드를 캐기만 하면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일세." 이 말을 들은 농부는 그때부터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길임을 믿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짓는 일을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집과 전토를 다 팔고 가족들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농부는 일확천금의 탐욕을 갖고 유럽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이 농부는 노자를 다 써버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까지 왔습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낚시대는 파도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 그 농부의 땅을 산 어떤 사람

이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반짝 반짝 빛나는 검은 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돌을 주워 자기 집 장식품으로 진열해두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수도승이 또 다시 옛 농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선 그 수도승은 이 돌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 원광석이었던 때문입니다. 결국 이 원광석은 잘 다듬어져 러시아 황제의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 농부가 찾던 행복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농부는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헛된 탐욕과 잘못된 방법이 행복이 아닌 불행에 주었던 것입니다.

어린시절 '파랑새'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산골마을에 사는 털털과 미털에게 어느날 밤 요

정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며 요정은 다이아몬드가 달린 마법모자를 주었습니다. 털털과 미털은 기억의 나라에서 밤의 궁전, 사치의 궁전, 미래의 궁전을 방문하면서 모험을 하며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보니 새장 안에 있었던 새가 그들이 찾던 파랑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 축복이 멀리 있을 것이라 여기며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행복은 혹시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 실망과 좌절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축복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헛된 탐심으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 아닐까요?

# 푸/ 른/ 초/ 장

임건택 목사  
(밴쿠버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좋은 의도와 신앙적 열심으로 여호와를 옮겼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열심으로 궤를 옮기려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토록 좋은 의도로,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했는데 왜 실패하였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교훈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누구와 의논하였습니까? 천부장 백부장들을 무시한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여호와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던 마음의 근본 동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고 해서 그 일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실수를 자주합니다.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 혹은 성도들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며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가 일의 동기와 목적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문에 기록된 사건에 의하면 다윗은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에 따라서 수레에 실어 옮기려 하였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례에 따라 여호와와의 궤를 나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쉬운 방법을 따라 궤를 옮기려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

다윗이 두 번째 궤를 옮길 때는 궤를 매는 자들이 매고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 다윗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방법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부터 다윗이 실패한 세 번째 원인이 나타납니다.

우사가 궤를 만져서 죽게 되자 다윗의 태도가 어떠하였습니까? 8절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에 대하여 분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아차!'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즉시 속죄제를 드리고 바른 방법으로 다시 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율법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궤를 옮기는 하였지만

에게 스스로 잘못을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열매결에 법계를 맡게 된 오벧에돔은 그 궤를 맡고 나서 축복을 받았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오벧에돔이 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물론 어느 누가 법계를 맡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26:1-4에 나타난 축복에 의하면 오벧에돔은 레위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서 여호와와의 궤를 맡을 수 있는 자들이 궤를 맡았을 때 거기에 축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벧에돔을 축복하시므로써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열심만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궤를 옮기려 했을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의도, 내 열심으로만 행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심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무성한 계획과 나의 뜨거운 열심만 있고 하나님이 빠진 봉사와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되 내 생각과 내 열심만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을 격노케 한 열심! 사무엘하 6:1-11

첫째로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정치지도자들과 의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의 삼하5:19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다윗은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할 바를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오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13:1이하에서는 이

영광을 돌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궤를 이용하여 온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통일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듯합니다.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아직도 사울을 기억하며 추종하던 세력까지 규합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천부장 백부장들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다윗의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계를 옮기는 이일에 정작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었

웠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는데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궤를 어떻게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실어 날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15절에 의하면 여호와와의 궤는 항상 레위인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면

처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여호와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와의 궤가 다시 한동안 오벧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돌이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사람들은 성경과 과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도전을 받았고 또한 지금도 도전 받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신하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노력은 창세기 아담을 유혹한 이래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성경을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공격도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책으로 남아있다.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이는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과학적으로도 정

속되고 있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다. 지금까지는 진화론이 우세해 보인다. 이미 가톨릭은 진화론을 인정하는 쪽으로 손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성경에 대한 진정한 해석과 진정한 과학적 진실은 일치한다. 문제는 항상 잘못된 성경해석과 확실하지 않은 과학적인 이론 사이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과학적 사실은 동의한다. 왜냐하면 둘 다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이 좋은 젊은이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수용하는 진화론자로 변한다. 아니 진

효과적인 개념은 격리법이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전염병이나 질병이 없이 생존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중세시대에 흑사병, 콜레라, 이질 등의 전염병이 유럽의 수많은 도시들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죽음의 도시들로 초토화시켰다. 교회가 그 해답을 성경에서 비로소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격리법이다.

레위기 13:45-46에 보면 문둥병자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 혼자 살고 고침을 받을 때까지 진 밖에 살아야 한다. 분명한 격리법이다. 왜 외치는가?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진 밖에서 살게 함으로 접근을 막았다. 성경은 의식법으로 종교적인 정결을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분명하고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법이다.

성경에는 현대적 개념의 노폐물 처리법(Waste disposal, 신23:12-14)이 나온다. 노폐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각종의 질병을 퍼지게 한다. 성경은 진 밖에 변소를 만들고 그리로 나가라 했다. 또한 땅을 파서, 몸을 돌리켜 배설물을 덮으라고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드시 옷을 빨아야 한다(40). 성경은 종교적 정결을 위한 명령이지만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병균의 감염을 막는 법이다.

성경은 산후조리법도 명령한다(레12장).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남자를 낳으면 33일을 지나야 정결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정결하다. 남자가기를 낳은지 40일이 되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기까지 그동안에는 예배도 공공장소에도 가지 않는다. 종교적 의식법이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산모와 아기의 질병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배려이다.

성경은 분비물로 인한 병균의 전염에 대한 방지법을 말씀하신다(레15장). 유출병자에 대한 예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병자가 부정하고(2) 또한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 닿으면 부정해진다(3). 높은 산도,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진다. 안장도 부정하다. 침에 닿은 사람도 부정하다. 반드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유출병자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정해진다(13절). 특별히 놀라운 것은 소독을 위해서 옷을 빼는 것도 놀랍지만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최근에 입증된 가장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신명기 26:12절을 보면 제 삼년 곧 십일조 드리는 해의 십일조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십일조를 꼭 교회에만 바치기보다 십일조를 나누어 선교와 구제, 전도 등 선한 일에 나누어 써도 괜찮은지요?  
-나성에서 김장로

**A:** 십일조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자발적으로 십일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 믿는 믿음을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창 14:17-24). 야곱도 엄숙한 서원을 결들이면서 십일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창 28:10-22).

모세언약에 관련하여 십일조의 언급은 모세오경에 다섯 번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레27:30-33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의 십일조 규정은 출19:1-레27:34절의 시내산 언약의 규범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일조의 문맥을 보면 십일조 관습 혹은 전통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사사들이 지켜져 오다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민18: 20-3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쳐야 하는 것과 백성의 십일조가 레위인들에게 회막 봉사에 대한 보수로 주어졌고 레위인들 역시 자신들의 수입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는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관계의 표현으로 의무적인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을 제외한 모두가 언약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곡식이든 가축이든 약속된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의 십일조를 매년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

### 십일조 사용은 교회가...성도는 교회에 드리면 돼

는 여호와께 성별되어 바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이 지상에 거하시는 장소로 지정하신 중앙성소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일조는 드리는 자가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십일조의 양이 많아 성소로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돈으로 바꾸어 성소에서 다른 예물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제3년차에 드리는 십일조는 신14:22-29과 신26:12에 나오는데 매 3년차 새로운 십일조는 두 가지 점에서 매년 드리는 십일조와는 달랐습니다. 첫째 저장 장소와 관련하여 중앙성소가 아닌 봉헌 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읍에 저장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 용도와 관련하여 3년차 드리는 십일조는 레위인 이방인 고아와 과부 같은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십일조 규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박애(博愛)적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의 백성의 모든 계층에 골고루 스며들어가게 함으로서 신정왕국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상담자가 질문한 것처럼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본인이 소속하여 말씀을 받아먹는 제단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나 자신이 구제나 선교 등 여기 저기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하되 교회 전반적인 필요한 부분 뿐 아니라 구제나 선교, 교육 등에도 건요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내가 이리저리 쪼개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히 바치는 것이 나의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십일조를 교회와 선한 일에 요긴한 곳에 잘 사용할 것입니다.

## 성경에 나타난 과학: 예방 의학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확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필요가 없다고도 한다. 물론 성경은 과학교과서는 아니다. 또한 성경은 과학적 용어로 쓰여지지 않았고, 만약에 현대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용어로 썼다면 과거의 수천년 동안 성경은 전혀 이해되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과 과학이 때로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가장 유명한 것은 갈릴레오의 지동설과 가톨릭의 입장을 따르는 천동설 사이의 논쟁이었다. 그 결과는 과학의 승리로 끝났다. 가톨릭은 갈릴레오의 입을 잠시 막을 수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21세기에 와서 교황이 가톨릭의 오류를 인정했다. 교황의 무오설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갈릴레오 천동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천동설은 자신들의 신학과 우주관을 성경을 빗자한 것 뿐이다.

또 다른 역사적 논쟁은 지금도 계

화론을 믿지는 않는다고 해도 진화론의 주장에 침묵한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성경과 과학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우리가 현대에 와서 비로소 이해하는 과학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현대과학은 성경이 진리임을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오늘은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다(출15:26).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가 19세기말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의학적 발견들은 성경의 정확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준다.

성경에 보면 현대의 격리법(Quarantine)이 나온다. 현대 공중보건의 예방의학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좋은 최고의 소독법은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다.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식법 제사법에 대한 명령들이었다. 하지만 비록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극히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학뿐 아니라, 물리학, 기상학, 생물학, 분자학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하여 성경말씀은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고 하셨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발의 등이 되는 성경을 뒤따라가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과 정확함을 다시 확인하고 놀라고 감동하게 된다. 주님이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진실하다. 다만 무지하고 죄악된 인생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신뢰할만하다.

효과적이고 좋은 최고의 소독법은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다.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식법 제사법에 대한 명령들이었다. 하지만 비록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극히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학뿐 아니라, 물리학, 기상학, 생물학, 분자학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하여 성경말씀은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고 하셨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발의 등이 되는 성경을 뒤따라가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과 정확함을 다시 확인하고 놀라고 감동하게 된다. 주님이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진실하다. 다만 무지하고 죄악된 인생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신뢰할만하다.

## EM 사역자(Part-Time) 청빙

슈리포트-보쇼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복음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자격**
- 1.5세, 2세 사역에 소명이 있으신 분
  - 한국어와 영어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치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 목회소견서

**접수마감일** ○ 2012년 3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 Elder Ho Suk Yu
  - 1180 Dudely LN Bossier City LA 71112
  - E-mail: rhs7869@hotmail.com / youngdook@msn.com
  - 전화: 교회 (318)742-3903, (318)751-2260
  - 당회서기 (318)349-2347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슈리포트 보쇼 한인장로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u@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태국의 루(Lu)



루족은 태국 북부지역의 열대 숲과 계곡을 생활 터전으로 하는데, 특히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지대인 치앙라이(Chiangrai) 부근에 주로 거주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한때는 "시암(Siam)"이라고 불렸었다. 다른 루족 집단들은 중국, 미얀마(전 버마), 라오스에서도 산다. 루족의 본래 고향은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많은 루족 사람들이 남쪽

으로 이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세워지면서 루(Lu) 왕국은 멸망했고, 많은 이들이 버마(현 미얀마)와 태국의 북부지방으로 피난했다. 루족은 타이 어족(語族)의 남서언어군에 속하는 성조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루족 사람들은 2-3개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학교에서는 중부 타이어(Central Thai)를 사용하며, 상업이나 생업을 위해서는 북부 타이어를 사용한다. 루족의 언어는 오직 루족 내에서만 통용되는데, 루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루어 - Lu)에 자부심을 느끼며, 루족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 삶의 모습

대부분의 루족 사람들은 강가 계곡에 사는 농부들이며, 이들은 소비와 판매를 위해 쌀(wet rice)농사를 주로 짓는다. 아직도 물소가 끄는 원시적인 목재 농기구들을 사용한다. 루족은 고기잡이에 탁월하고 은공예에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은 명품으로 알려진 루족 칼(Lu swords)을 제조하며, 여자들은 직조와 수예에 뛰어나다. 태국 정부는 태국 북부지역으로 피난 온 사람들, 특히 마에 사이(Mae Sai)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제한한다.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루족들은 빗자루를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 일부는 공장에서 보석 세공원으로 일하기도 한다. 루족은 논으로 둘러싸인 구릉이나 도로나 길을 끼고 생긴 평지

보다 약간 높은 지대에 마을을 이룬다. 루족은 타이(Thai)식 "더미(pile)" 집에 사는데, 초가지붕에다 바닥은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형태이다. 각 마을들은 세망(semang)이나 족장이 이끌어 가는데, 마을 대표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쌀농사를 지을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루족 사회는 어떤 엄격한 사회규범이 아닌 주로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듯 보인다. 공론이나 근거 없는 한담 등이 마을에 퍼지기도 한다. 루족 남성들은 산속이나 북부 타이족 남성들에 비해 체격이 우람하고 힘도 더 세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청색 외투를 입으며, 빨강이나 노랑, 흰색의 허리에 균정색의 나팔바지를 입고 큰 흰색 터번(turban)도 두른다. 특히 루족 남성들의 특색있는 멋진 칼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여성들은 작은 은(銀) 조각으로 장식한 밝은 청색 상의에 적

색이나 진홍색의 치마를 입고 터번을 두른다. 집집마다 조상의 사당이 있어서 결혼식 장소로 이용하거나 성행위를 통제하는데 사용한다. 루족 사회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용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쌍이 결혼을 하면, 이들 부부의 노동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이 어느 집이냐에 따라 거처(居處)를 결정한다. 신앙 루족의 80% 정도가 토속신앙을 믿는다. 테르바다(Thervada) 불교는 종종 토속적 정령숭배와 혼합된 형태인데, 이들은 인간이 아닌 물체들도 혼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여러 개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지역의 영들"(territorial spirits)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 계층에 따라 구분된다고 믿는다. 또한 루족 사람들은 조상 숭배(죽은 조상에게 기도를 하며 도움을

구함) 의식을 행한다. 이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신들을 즐겁게 하고 달래기 위해 종교적 성가(聖歌)와 의식, 제사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다. 루족은 윤회(輪廻)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약 선한 삶을 살면 다음 생(生)에서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반대로 악하게 살면 하등(下等)한 동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두 선교단체가 태국의 루족을 섬기고 있는데, 사역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루족에는 기독교인이 30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3년에 신약만 루족어로 번역된 했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맞는 루족 언어로 신약 성경이 모두 번역되어야 하며, 또한 기독교 방송매체와 다른 복음적 자원들도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뉴욕경찰, 북동부 전역 무슬림 대학생 감시

해프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에 대한 이란의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경찰(NYPD)이 수년간 관할 구역을 넘어 미국 북동부 전역의 무슬림 대학생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연합뉴스가 지난 20일 뉴욕=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동 기사에 따르면 뉴욕 경찰이 시티 칼리지, 브루클린 칼리지 등 뉴욕시에 있는 대학들의 무슬림학생회에 정보원이나 위장 수사관을 심은 것은 지난해 공개됐지만, 예일대, 펜실베이니아대, 시라큐스대 등 다른 지역의 학교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한 사실이 18일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형사들은 무슬림 학생들의 웹사이트를 매일 훑었다. 아무 혐의가 없는 교수와 학생의 이름도 레이먼드 켈리 뉴욕 경찰국장에게 올라간 보고서에 기록됐다.

경찰은 위장 수사관을 학생들의 래프팅 여행에 보내기까지 했는데 참석자의 이름과 이들이 기도한 횡수도 보고했다. 버팔로대 학생 아델라 칸은 지난 2006년 이슬람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이메일을 받고 이를 야후 채팅 그룹에 전송했다가 경찰 사이버 정보팀의 보고서에 이름이 올랐다. 학생 그룹은 테러 단체가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젊은 무슬림 남성들이 있는 곳이란 점에서 뉴욕 경찰은 특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시라큐스대 무슬림학생회 성직자인 탄위르 하크는 민권이 침해받았다면서 "FBI나 경찰의 명단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슬림 학생들은 사생활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기회를 누리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지의 경찰은 최근 핵 프로그램을 놓고 서방과 대립하는 이란이 미국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이란인이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의 경찰은 최근 몇 주간 이란의 위협 가능성을 정보 브리핑에서 1순위로 올렸다. 뉴욕 경찰은 이란이 유대인이 많은 뉴욕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태국과 인도, 그루지아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의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는 등 긴장이 한층 고조되자 미국 각지의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더욱 경계하면서 특히 이란이 무장그룹인 헤즈볼라와 연계해 공격할 수도 있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 조용기 목사 UAE 아부다비 축복성회 성료

인도순절협의회(회장 란깃 아브라함 목사)가 주최하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주관한 '조용기 목사 초청 아부다비축복성회'가 지난 16-17일 중동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연인원 2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국민일보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DCEM은 지난 2000년 조용기 목사의 국내와 해외사역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파를 초월해 설립된 국제선교기구다. 이번 아부다비성회는 두바이와 요르단에 이어 DCEM이 세 번째 개최한 중동지역 성회였다.



이슬람권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신교 성회란 점에서 개최 전부터 관심을 끈 이번 집회는 '평화의 축제(Festival of Peace)'란 주제로 열렸으며, 아랍에미리트 내 인도계와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과 아랍계 기독교인들이 참석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구촌 복음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첫 성회가 열린 16일, 조 목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선포. 참석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당 강단에 이어 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그 분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원수 마귀의 저주는 사라지고 질병은 치료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설교 후 가진 신유기도 시간에는 8년 전부터 목발을 짚으며 생활했던 장애인 이 목발을 던지고 단상에 올라오는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간증했다.

집회 둘째 날인 17일에는 하루 종일 강한 모래바람

이 불어 주최 측은 당황케 했으나 행사 1시간 전에 바람이 그치고 조용해져 주위를 놀라게 했다. 조 목사는 성도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단단히 '4차원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했다.

아랍에미리트 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이 주도한 이번 집회는 강력한 이슬람 체제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에서 열렸다는 점과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동 정세와 맞물려 이슬람권 선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 영국서 이슬람 테러리스트 사이트 발견

영국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고 런던 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동 기사는 '무슬림프리즈너스닷컴'(muslimprisoners.com)이 테러 공모죄로 수감중인 과격 테러주의자들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수신통을 게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선데이타임즈가 인용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선데이타임즈가 취재를 시작하자 폐쇄됐으나 일부 편지는 캐시 형태로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지를 쓴 테러리스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영국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로 대부분 현재 수감 중이다.

2010년 영국 의원 한명에게 칼로 테러를 가했다가 수감된 로소나라 초드리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슬람 형제'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영국 법무부는 편지의 진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수감자들은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며 "편지를 검열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편지는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재소자 관리 시스템으로 과격 수감자나 다른 재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감자들을 가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슬림프리즈너스닷컴 사이트에 연락처가 게시된 아부 무시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 미국 30세 이하 산모의 53%가 '싱글맘'

젊은 미국여성의 출산아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아

빠가 없는 상태에서 탄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8일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아동추세'(Child Trends)가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의 자료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 2009년 현재 30세 이하 미국인 산모의 53%가 '싱글맘'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전에는 빈곤층과 소수인종에 국한됐던 싱글맘이 이제 중산층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신여성의 출산 비율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최근 20년간은 20대 백인 여성에게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이들은 전문대를 졸업하는 등 학력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동안 전 연령대에 걸쳐 미국 전체 싱글맘의 비율도 1990년대 중반의 33%에서 2009년 41%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신생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30세 이하 여성의 가파른 증가세는 사회가 그만큼 변했고 교육이나 소득 격차와 함께 가족의 구성이나 개념도 달라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타임즈는 가족 구성의 이런 변화는 새로운 계급적 분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결혼을 해도 생활이 달라질게 없다는 인식이 강해 결혼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결혼으로 경제적, 사회적 형편이 개선되는 특권이, 많이 배운 고소득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 소유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결혼 이전에 출산하지 않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싱글맘의 최종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가 57%, 전문대졸 이하가 38%인데 비해 대졸 이상은 8%에 불과하다. 인종별로도 흑인은 73%, 히스패닉은 53%인데 비해 백인은 29%에 그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프랭크 퍼스타인버그 교수(사회학)는 "이제 결혼은 사치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향의 요인은 다양하게 지목된다. 진보진영은 빈익빈 부익부로 결혼할 형편이 되는 인구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보수 측에서는 성(性) 혁명으로 결혼 인센티브가 사라졌고 과도한 복지혜택도 이를 부추긴다고 강조한다. 동 지는 이 같은 추세의 가장 큰 희생자는 아이들이라며 싱글맘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들고 정서나 행동에서 장애를 겪을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 코미컬

**코미컬 - 교회 성장, 본질이 모퉁이다**  
김집사

**코미컬 - 교회 성장, 본질이 모퉁이다**

이 책은, 교회 성장의 핵심인 코미컬 즉,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에 세 단어로써 찾고 있다. **코이노니아(Koinonia)**란 우리말로 '영교, 교제, 사랑'이며 **미션(mission)**이란 사명, 선교 등의 뜻이다. **멀티플리케이션(multiplication)**이란 '증식, 번식'인데, 모든 생물은 증식 능력이 있고 증식을 하게 되듯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나 성령 충만한 교회 역시 생명이 있어 증식할 능력이 있고 증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명의 회회자와 한 명의 멘토가 여행하면서 각 여행지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분하고 대화하며 풀어가는 방식이며, 영리 편을 자제하게 서술하고 있다.

**코미컬 - 김 집사의 목양행전**

김집사라는 펜신도가 대구북장이라는 하나어스그룹에 코미컬의 영리행이 펼쳐져온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감으로써, 적용편을 그림처럼 보여주었다.

**이강천 목사**

서울신학대학 동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목교, 목회학을 역임하였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기독교문화와 교수로 재직하였다. 경남 밀양교회, 영동중앙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였고, 기독교대한성령교회 총회 선교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하나님의교회 목장으로 목회하고 있다. 선교사 및 목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은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강화와 자유사역, 그리고 교회권 신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성지 기성, 구세군, 여정 등을 통해 고마를 초월해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저서로는 그의 생애를 다룬 '기성지 기성, 구세군, 여정' '영적의 종노릇', '성령사역으로의 초대', '서체를 품다'는 영성, '성령에게, 그리고 자살해대의 축복'이 있다.

● 인터넷뉴스소 운영, 편집인사 ● 홈페이지 www.gunren.co.kr ● 주소 서울 송파구 이태원 134-3 ● 전화 (02)747-1004 ● 불만출판사



# 특별기고

## 상식을 강조하는 해가 되지 않기를 (Common Sense)



김기원 목사 (서울 장위제일교회)

상식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어쩌면 서글프게도 상식을 강조해야 되고 상식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식은 특별교육이나 강조 없이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전승되어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1. '경청'의 상식

경청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대화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극히 상식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경청'이란 말을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의견을 듣기보다 자기의 주장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하는 풍조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회에 경청의 모습이 빈약하고 특히 이념주의자들, 잘못된 이념에 세뇌된 자들이 경청에 빈약함은 만민이 다 아는 바인 것입니다. '경청'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 2. '소통'의 상식

서로서로의 의견이나 의사가 잘 전달되는 길이 소통입니다. 소통의 반대는 불통입니다. 불통 때문 이해, 공감대인양, 협력의 빈약, 리더십의 빈약 가져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삶의 길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 발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소통의 부족으로 오는 오해, 무능, 비협조적인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되어야 하고 인간관계(가족, 직장,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소통이 잘되어야 합니다. 독재는 소통을 통제하고 독재통치에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고 주입시킵니다. 우리는 소통보다 선동, 왜곡주장, 세뇌의 문화가 소통상식을 엄청나게 퇴보시켰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모가 경험한 신앙경험이나 지식을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소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3. '배려'의 상식

이웃이나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마음을 쓰고 이해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수준 높은 인격이나 사회는 배려문화가 뿌

리내려 있습니다.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는 배려가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더더구나 욕심이나 욕망의 종이 되면 배려는 힘듭니다. 사랑도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고, 섬김도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고, 화목도 배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배려는 이해에서 나오고 양보는 배려에서 나옵니다. 배려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식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배려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바로 배려의 삶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 4. '칭찬'의 상식

칭찬에 인색한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칭찬받는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좋고 훌륭하게 여기는 것 아낌없이 말로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이 사라진 인간관계나 조직을 상상해 보십시오. 칭찬은 상식이 되어야지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5. '긍정적 사고'의 상식

긍정적 사고는 항상 좋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면을 어필시키기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시각이요, 생각이요, 언어입니다.

우리가 열 가지 장점보다 한 가지 단점을 강조하고, 되는 쪽을 보기보다 안 되는 쪽을 본다면 그것이 미칠 퇴보와 어두운 분위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개발해야 발전이 있고,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습관화된 개인이나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긍정적으로 가르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와는 그들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부정적인 면이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긍정적 사고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직, 성공, 꿈 비전 등이 모든 것이 상식이 된 사회가 될 때 우리는 인격과 정신과 문화와 경제발전이 함께 가는 문자 그대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2012년은 경청, 소통, 배려, 칭찬, 긍정적 사고와 정직, 성공, 꿈, 비전 등이 강조되지 않아도 우리의 의식구조와 문화의 바탕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새 책 소개

## "성경이 말하는 기도"

저자 김용복 목사



성경적 관점에서 본 기도의 바른 이해 서술

미주청농장교회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용복 목사의 신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룬출판사에서 출판됐다. 이 책은 기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과 성도의 관점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엮여져 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조명하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플러싱 소재 영림교회 김필식 목사는 서평에서 "분서는 참다운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기도 이외에는 능력이 나올 곳이 없다. 오직 참다운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전한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합당한 삶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피종진 목사는 "이 책이 오늘날 해일같이 밀려오는 산적한 문제들과 철학 같은 어두움의 권세들을 막고 환히 밝히는 영적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지고한 기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의 경험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오순절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고 궁극적 구원의 완성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연락처: (310)612-7939 미주청농장교회회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핑몰

- ▶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 ▶ **매주 2회 항공 직수입**
- ▶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물
- ▶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 ▶ Site에 올려있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 ▶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매 드림.

E-mail : [gospelmail@hotmail.com](mailto:gospelmai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최저가를 보내주세요

▶ 사용자 질문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1.800.404.1171**

**교회도서부 설치전문**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2012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회원 등 단체 이용 세거드립니다

**2012년 미주판 다이어리 지금 주문하세요**

다이어리 맞춤제작 + 최저가격 보장

다양한 디자인과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클란(대) | 클란(중) | 멘토링 | 하이움 | 아가페**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Product
2300 ANSI LUMENS 2000:1
2600 ANSI LUMENS 2200:1
3000 ANSI LUMENS 2000:1
3300 ANSI LUMENS 600:1
5200 ANSI LUMENS 1200:1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전, 집, 방안, 캠핑의 교회전송을 전문업체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밝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이용필스피커
- USB호스트 가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광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반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입합니다. **바이어컷 (무착륙)**

아래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이중통역기**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견해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애드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행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포럼등에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미주동부 지사 획득! 특별개업**

**벨라성구사**  
에히드수정판대량 판매 크리스탈 필립트 LAMPS를 설계한 필립트 장대형 벨라성구사 특색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양구사 최초 대량구매 특가: 50%인원 할인(1000명 이상) 50%인원 할인(2000명 이상) 60%인원 할인(3000명 이상) 70%인원 할인(4000명 이상) 80%인원 할인(5000명 이상) 90%인원 할인(10000명 이상)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풀업가운, 성가대 인금위원, 드레스-생강영복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ll.com](http://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포럼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73. 처음이 좋았다(7)-여섯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24-25).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드신 그대로 된다. 창조 6일째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기어 다니며 사는 쥐 같은 동물들과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과 공룡을 비롯하여 개나 고양이 같은 야생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흠족해 하셨던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을 하셨다.

이 때 모든 동물들은 풀을 먹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30). 사람도 동물들을 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만을 먹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창1:29).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성취되므로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일반 과학자들은 달리 성경은 창조 3일째 창조된 식물들이 생명(life)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창조 5일째 만들어진 물에서 사는 생물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6일째 만들어진 각종 동물들만 생명이 있는 것(히브리어로 “네페쉬”)들로 취급된다. 만약 동물과 사람의 음식이 될 식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상태에 죽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육식 동물의 송곳니가 진화되었거나 타락의 결과로 생각한다. 만약 없던 이빨이 생겨나는 경우라

면 새로운 유전정보가 추가된 경우이므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이빨이 길고 날카로워졌다면 이 경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로 보아야 한다. 변이 가능성이 너무나 커서 일반인들은 종종

동물의 송곳니가 너무 날카로워 이 동물을 잡으려고 닭고기를 미끼로 달았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미끼를 바나나로 바꾸었을 때 이 동물을 잡는 데 성공을 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동물은 식물만을 먹고 산다.

또 박쥐의 송곳니도 무섭다. 꿈에 본다면 오금을 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박쥐들 중에는 식물만 먹고 사는 박쥐도 있다. 그러므로 동물들의 송곳니가 처음에 날카롭지 않았는데 변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지만 타락한 다음부터 그 송곳니를 사용해서 육식을 하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죄가 있기 전에는 육식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범죄 전에도 육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은 하나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가축은 사람들이 만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길들였을 것이라는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성

노아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창9:2). 흥미로운 표현은 이제부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셨다. 노아홍수 직전까지도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들이 사람과 친근하게 지냈다는 말이다.

더욱 흥미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동물들 중에 가축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노아홍수 이전에 각종 동물들과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지냈다면 범죄하기 전에 사람과 동물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과 잘 어울리는 표현처럼 느껴진다. 이제 많은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마도 많은 동물들 간에도 그런 두려움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 노아홍수 전까지 짐승, 새, 물고기 사람과 친근 낙타와 라마, 육식동물의 날카로운 이빨도 변이



**이 모습이 정상**

현재만 보고 과거를 알기 어렵다. 성경에 의하면 육식동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다른 종이 생겨났다고 말하며 소진화로 오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남미 대륙의 핀치새가 갈라파고스 섬에서 14종으로 분화된 경우나 아시아의 낙타와 남미의 라마가 같은 조상에서 종 분화 된 것을 소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경우 다 변이의 결과다. 그러므로 만약 육식동물들의 이빨이 길고 날카로워졌다면 그것도 역시 변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빨이 날카롭게 생겼다고 모두 다 육식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에 사는 킹카주(Kinkajou)라는 야생동물은 실물보다 먼저 해골이 발견되었다. 이

경은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가축을 창조해 주셨다고 말한다. 그것들이 어떤 동물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풀을 먹고 살면서 정결한 동물이기도 한 양과 소는 적어도 처음부터 가축으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노아홍수 때 방주에 오른 동물들의 명단에도 가축들이 종류대로 들어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들은 한 쌍이 아니라 일곱 마리를 방주에 넣도록 하셨다. 창조 때부터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구절들이다.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9:3. 홍수 전에 고기를 먹어보지 않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처음 육식을 하던 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맛있는 고기들을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할 때면 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깨운하지 않을 때가 있다.

아시아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65:25)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창조 세계와 같이 회복 된 세계를 다시 보여주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 6일째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흠족해 하셨던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낼 각종 동물들을 자기 형상들을 위해 흠족하고도 남음이 있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상은 곧 사라지고 동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야생과 고동과 죽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복음의 시작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진/강/칼/럼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 위험한 기도

비밀유지가 안되어 교회 혹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 관련 상담이나 기도모임에 개인신상 정보 노출이나 나눔으로, 좋은 의도로 포함되어 정보 관련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마음의 위로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나눔 내용이 상처를 더 심하게 하여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누구에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돌아서돌아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이야기가 아주 왜곡되어 돌아온다. 특히, 나눔 이야기를 남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을 때는 자신에게 심적 고통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는 상대를 더 이상 신뢰하기가 힘들어져서 감정적 거리를 두게 된다.

중보기도 팀을 없애 적이었다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를 권장해왔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기도의 활력을 불어 넣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목사님께서도 전통적인 중보기도의 유익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보기도 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염려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중보기도 팀에 참가하는 교인들이 기도시간에 나눔 성도들의 이야기(비밀)를 외부에 누설하여 교회의 영적 질서를 상당히 어렵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의 비밀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하게 되었고 신뢰를 받는 중보기도 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목사님은 ‘중보기도팀이 있었던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항상 머무는’ 원칙을 세우고 기도팀이 지키도록 훈련했다고 했다.

다른 목사님의 고백이다. 어느 성도가 사역자 당신에게 자신의 심적 고통을 나누며 기도부탁을 하여 사역자 당신이 그분의 아픔을 계속 기도함은 물론이고, 좋은 의도로 교회의 여러 식구가 함께 기도하자고 중보기도 시간에 내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그 기도를 부탁한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당사자는 사역자에게 나눔 이야기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당황했다고 사역자 본인 자신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사역자는 그것을 알고 무조건 그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과 특정 기도시간에 내도 좋은지를,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지혜를 터득했다고 했다. 그리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익명으로 기도 시간에 내용을 나누기도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저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혹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한 분...” 등의 표현으로 교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우회하면서 말이다.

교회에서 점점 기도제목을 내놓기가 힘들다고 인식하거나 ‘기도 내용을 내놓아 보아야...’라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늘어가는 것 같다. 마음의 힘들음을 신뢰할 수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회복치유적 관점에서 중요한 데 안타깝게 여겨진다. 신뢰가 없으면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비밀유지 능력은 공동체의 사랑(영적)의 분위기를 위한 신뢰형성에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다. 아름다운 나눔은 감정적 정화도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게 되고, 때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도 얻게 되고 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신뢰를 더 구축하여 문제복합으로 인한 외로움을 벗어나게 하여 돌봄의 가치의 인식을 강하게 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신뢰 구축과 형성이 필수적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b>갑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후 8:30 (월-토) Tel: (702) 379-7979, Fax: (702) 379-8191 6534 N.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8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30 세례 기도회: 오후 8:30 수요찬양대: 오후 11:30 Tel: (704) 841-6291, Fax: (704) 841-1698 4213 Peachtree Ave., Charlotte, NC 28270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 기도회: 오후 7:00 Tel: (303) 431-8800, Fax: (303) 431-8943 7785 Ripley St. Arvada, CO 80009	<b>풍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8:00 Tel: (910) 222-8291, Fax: (910) 222-8291 3290 Morris St., Levittown, PA 15046	<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미국)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410) 445-9319, Fax: (410) 445-9319 1600 Rockaway Rd., Levittown, PA 15047	<b>맨 앨 교회</b>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8:30 Tel: (410) 445-9319, Fax: (410) 445-9319 3700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1:30 수요 찬양대: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617) 252-4450, Fax: (617) 252-4450 750 Main St., Hopedale, MA 01923	
<b>볼티모어 교회</b>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410) 327-8444, Fax: (410) 327-8444 1005 Reservoir, Baltimore, MD 21202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한국)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204) 455-0191, Fax: (204) 455-0191 5007 Pacific Ave., Winnipeg, MB R2P 6S8	<b>시애틀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206) 527-0381, Fax: (206) 527-0381 4040 N.E. 50th St., Seattle, WA 98125	<b>입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301) 820-8049, Fax: (301) 820-8179 850 Rocky Hill, Gaithersburg, MD 20878	<b>앵커리지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202) 344-6446, Fax: (202) 344-3132 2320 Woodrow Ave., Anch, AK 99518	<b>엘파스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재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214) 915-7279-1496, Fax: (214) 915-7279-1496 3416 Atlas Ave., Plano, TX 75044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윤진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714) 543-0396, Fax: (714) 543-0397 750 Wilbur St., Homestead, CA 94034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214) 424-6766, Fax: (214) 424-6767 428 E. 9th St., Dallas, TX 75247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성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702) 341-4427, Fax: (702) 341-4448 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7	<b>주 예수 교회</b> 담임목사: 배현창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www.99c.org Tel: (904) 200-7900, Fax: (904) 200-7914 10201 Robbins Rd., Richmond, VA 23228	<b>큰문리교회</b>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www.104thavenue21.org Tel: (410) 203-0318, Fax: (410) 203-0318 328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252) 335-9199, Fax: (252) 335-9199 7481 S. Verbe St., Thomas, NC 28686	<b>타코마 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Tel: (252) 335-9199, Fax: (252) 335-9199 8702 E. St., Thomas, NC 28686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252) 335-9199, Fax: (252) 335-9199 824 E. Yukon Ave., Thomas, NC 28686	
<b>템파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한국)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480) 725-0191, Fax: (480) 725-0191 1150 E. Debon Rd., Chandler, AZ 85226	<b>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현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603) 842-4738, Fax: (603) 842-4738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하와이 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808) 942-9011, Fax: (808) 942-9011 1835-A Pepee Ave., Honolulu, HI 96816	<b>아가페신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808) 942-9011, Fax: (808) 942-9011 1835-A Pepee Ave., Honolulu, HI 96816	<b>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808) 739-7004, Fax: (808) 739-7004 3023 8th Ave., Honolulu, HI 96816	<b>하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808) 277-2386/967-1778/642-2522 1367 E. Banelan St., Honolulu, HI 96814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대: 오후 8:00 Tel: (808) 942-4252, Fax: (808) 942-4252 2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PRE 발의안 60만 서명운동 동참하자!

## 남가주교협 주관 6개 지역 교회서 세미나 열려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보호) 발의안 서명운동관련 목회자 및 리더 세미나가 TVNEXT 김태오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와 새라킴 사모(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 한인대표)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16일부터 20일까지 남가주지역 6군데 교회에서 열려 SB48을 비롯 각종 동성애 관련 법안 등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비기독교적 법안들과 미국의 새로운 발의안들, 자녀교육 방향, 2012년 대선 등 크리스천들이 처한 위치에 대해 극복 방안을 설명했다.

16일 '미국의 대 역사적 위기 &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주제로, 저녁 8시 워싱턴교회(담임 엄규서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태오 목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40년가량 된 미국은 대역사적 위기를 겪고 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착했지만 현재 오바마 정부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도파페지 등 결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또



PRE발의안 서명운동관련 목회자 및 리더세미나 참석자들.

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을 도입해 이 땅을 무슬림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는 나태를 할 수 있도록 돼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으로 영아살해를 인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Macy's 백화점은 여

장한 남자를 탈의실에 들여보내지 않은 종업원을 해고했으며 산타 바바라의 한 공립도서관에서는 포르노를 볼 수 있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을 통해 동성애 법안이 거부됐지만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적 소수자 관련 단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전략적으로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결과 지난 2월 초에

증스러운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말했다.

송 목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대한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한다"고 지적하며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응답 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야 역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니 이민자들의 삶이 고달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교회에서 자녀들을 책임져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들이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roposition 8이 위헌이라고 결정이었다.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른 주도 무너지기 쉽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라킴 사모는 "미국은 현재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8년간의 부시행정부의 잘못으로 경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8년간 부시행 정부는 5조 달러의 빚을 졌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3년1개월 만에 5조 달러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의 경제실책을 꼬집었다.

김 사모는 또 "부시대통령 시절 수많은 동성관련 법안을 저지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동성관련법안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따라서 올해 치러지는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가 되어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모는 "앞으로 어린이 중고등 부 캠프를 추진해서 교육에 힘쓰려고 한다"며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왜 안되는지 꿈에 생각할 수 있는 캠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교협은 'SB48'(캘리포니아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을 골자로 한 법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PRE 발의안을 위해 6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PRE 발의안의 취지는 SB48 때문에 침해당한 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교육자의 권리를 되찾아준다는 데 있다.

서명서는 www.TVNEXT.org(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다음세대가치관 보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영어 자료는 www.parentalrightsin-education.org에서 구할 수 있다. 기도와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는 tvnext.org@gmail.com 또는 sarahspring2009@gmail.com로 하면 된다.

김 사모는 "작성 방법은 SB48 반대 서명운동 때와 동일하다"며 "검정 펜을 사용 정자체로 써야 하며, 꼭 원본 청원서를 복사해서 서명을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탈북자선교회원 초청 나눔의 시간에서 송정명 미기총 대표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미주내 탈북자돕기가 북한선교 지름길

### 미기총/남가주교협 공동주관 탈북자선교회원 초청나눔의 시간

탈북자선교회원 초청 나눔의 시간이 미기총(대표회장 송정명 목사)과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공동주관으로 18일 오후 6시 타운내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렸다.

탈북해서 미국에 정착한 이들을 초청해 열린 이 행사는 송정명 목사가 환영사를, 변영익 목사와 정호영 장로가 격려사를, 미기총 이사장 최대영 장로가 기도하는 등 탈북자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식사를 하면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남편과 딸 그리고 부모를 북에 남겨두고 탈북한지 4년차에 접어든 한 자매는 "환영모임 등에서 대접 받을 때 제공되는 음식을 보면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이 생각나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해 번 돈은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으로 비즈니스를 위해 왕래하는 자들이 브로커 역할을 한다. 수수료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족들에게 전달된다고. 전달여부 확인은 핸드폰으로 가족과 통화로 확인이 되는데 북한당국의 단속이 심해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고 단지 송금확인만 되고 있다.

재미탈북자지원회 로베르트홍 회장은 "교회나 선교회 등이 북한선교를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선교는 중국과 제3국에 흩어져있는 북한탈북자들과 북한현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31명의 탈북자들의 북한송환에 대해 반대를 외치지만 정작 미주 땅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한인교회들이 북한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원금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북한정부를 위해 쓰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을 위해 효과적 인 지원은 바로 미주 땅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연목회 이취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갈멜산기도원 개원예배를 인도하고있는 조성근 목사.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야 응답"

### 미주갈멜산기도원 개원예배 성황, 설교 송정명 목사

미주갈멜산기도원(원장 조성근 목사) 개원예배가 19일 오후 5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성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송정명 목사가 설교를, 김영모 목사가 축사를 했으며 기도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등 한 인타운의 기도처소가 탄생을 축하하

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열왕기상 1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송 목사는 "엘리아 선지자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방종교지도자 850명을 맞서 이겨낸 것처럼 오늘날 절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곳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닥친 SB48을 비롯 전미 7개주에서 허용된 동성결혼법 등 가



## "주님의 영광위해 혼신 다하겠다"

### 미주복음주의장로회총회 한중섭 목사 임직

미주복음주의장로회총회(총회장 오중길 목사)는 지난 2월 15일 시카고 여수교회에서 한중섭 목사 임

직예배를 드렸다. 전성철 목사(여수교회 담임) 사 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이호민 목

사(서기) 성경봉독, 김병용 목사(총무) 대표기도에 이어 변영익 목사(수석부총회장)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임직식에서는 동 총회 고시위원장인 정요한 목사가 서약과 안수식을 거행한 후 명병헌 목사(고신증경총회장의 권면과 격려) 목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임직 받은 한중섭 목사는 "남은 생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1990년대 남가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가주에 계신 교단목사님들께 안수 받은 것이 더없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제공: 미주복음주의장로회)

## 새회장 정요한 목사... "최선 다하겠다"

### 연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이임 김영대 목사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연목회 회장 김영대 목사)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9일 오후 6시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김영일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 철 서기가 대표기도를,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협 회장)가 '네가 주의 일군된 것'(골 1:24-2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김영대 이임 목사의 이임사와 정요한 취임목사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정요한 신임 회장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볼 때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업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송통신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감사하고 유익했다. 지난 98년 미국으로 건너와 연목회에 합류하게 됐다. 12대 회장으로 연목회 회원들이 든든한 유대관계를 위해 그리고 총동문회와 함께 최선을 다

해 일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문준 연세대 총동문회 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정요한 회장이 김영대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예배는 박종대 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기사제보·편집/광고문의  
(718)886-4400 NY  
(323)665-0009 LA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계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usa@samcare.org, seokhol@samcare.org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복음선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장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reformeduniv.org  
TEL: (714)796-8833 FAX: (714)796-883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영을 뉘는 것입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례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배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8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및 학생  
2707 N.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8 www.lifebook.co.kr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권  
기사제보와 문의선교 후원을 받으실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동부교계 기사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목회자 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회(회장 김금옥 목사가 3월 26일(월) 신경림 목사(웨슬리신학대학교 부총장)를 강사로 목회자세미나를 갖는다. 장소는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문의: (718)614-4565

퀸즈장로교회 제 26회 사순절 새벽기도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제 26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2월 27일(월)부터 4월 8일(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열린다.

▲문의: (718)886-4040

미드웨스트대학교 신, 편입생 모집

미조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2 봄학기 신,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위과정은 ESL과정과 학사, 석사, 목회학박사 등이 있으며 온캠퍼스와 온라인 강의가 모두 가능하다. F-1비자, 수시입학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영어회중 사역자 청빙

올마니 사랑의교회(담임 박성일 목사)가 영어회중과 유스그룹을 담당할 풀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1.5세나 2세로 영어권 사역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가된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4월 첫 주까지 이력서를 이메일(eunjoo.han@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웹사이트 www.albanysarang.net

▲문의: eunjoo.han@gmail.com

빛과사랑 성경암송대회

빛과사랑(발행인 권태진 목사) 창간 24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가 4월 28일(토) 오전 10시(필기)와 오후 2시(구술)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대회는 개인일반부(한/영)와 학생부(장학생 선별, 한/영), 단체(한/영, 구술시험 없음)로 나뉜다. 대상은 일반/단체부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학생부는 11, 12학년, 2,4년제 대학생. 부문별 1등에게는 각각 1500달러(개인), 600달러(단체), 2000달러(학생)가 주어진다. 시험방법은 바이블 파워 100의 100문제 중 30문제를 선정한 필기시험을 치며 필기시험 우수자를 선정한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신청자는 성명(한/영), 주소, 전화번호, 소속교회(직분)를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학생은 재학증명서 첨부. 신청마감은 3월 31일이며 시상식은 5월 27일.

▲문의: 팩스 (516)883-1964 이메일:lightloveny@yahoo.com

뉴욕시 공립교 예배 퇴거 10일 연장

16일 연방지법...하원계류 A8800법안 통과되면 허용

뉴욕시가 12일까지 명령한 공립학교 예배퇴거 기한이 지난 가운데 지난 16일 연방 지방법원이 공립학교 예배퇴거 사용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은 16일 브롱스에 위치한 교회인 '브롱스 믿음의 집'을 변호하는 법조인단체 ADF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립학교에서 앞으로 10일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임시 법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는 공립학교 예배퇴거 사용 허용 법안(A8800)이 뉴욕 주 상원을 통과한 이후 뉴욕 주 하원에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이번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뉴욕시의 퇴거 명령도 10일간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이와 관련, 동 법안 반대를 추진 중인 카브레라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내고 "이는 공립학교 예배 허용을 위해 투쟁해 온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승리"라며 "공립학교 예배 연장기간은 무기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일 뉴욕 주 하원에서 법원이 지정한 10일 이내에 A8800법안이 통과된다면 교회가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나 현재 하원들 중 A8800법안을 문제 삼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타종교 의원들이 공립학교가 교회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해 A8800법안에 정교 분리원칙을 내세우며 '예배는 드리되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무리한 조항을 삽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이 될 경우 다시 상원과 조율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던 60여 교회 중 한인교회는 대부분 이미 공립학교를 떠나 임시 예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교회인 뉴프론티어교회(담임 류인현 목사), 맨하탄선교교회(담임 최재원 목사), 캠퍼스선교교회(담임 박수호 목사) 등은 지난 12일을 기해 다른 예배 장소를 모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백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렌트비 감당은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교회 측은 밝혔다.

그동안 예배처소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뉴욕한인교회를 비롯한 뉴욕지역 미국교회들이 서명운동과 도보행진을 하는 등 적극 대처해왔으나 뉴욕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메릴랜드 주도 동성결혼 합법화 될 듯

17일 주하원 통과,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거부권

메릴랜드 주가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과한 8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메릴랜드 주 하원은 지난 17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71대 반대 67로 통과시켰다.

메릴랜드 주 하원은 지난해 이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으로 표결이 보류됐던 바 있었다. 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상원은 지난해 동성결혼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이번에도 상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마틴 오말리 주지사도 동성결혼법안을 찬성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지사 서명에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한편 이날 뉴저지 주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해 민주당 다수와 의회를 통과했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과 관련, 서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가 크리스티 주지사의 거부권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하원 3분의2 의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거부하는 대신 동성 커플에 대한 인권옹호관인 '옵부즈먼'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로써 메릴랜드와 뉴저지 주는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결과를 빚었다.

(유원정 기자)



T2C미니스트리 주최 "뉴욕을 위한 예배모임"에서 전문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지역 청소년들을 "강한 용사"로 T2C미니스트리, "뉴욕을 위한 예배모임" 개최

T2C(TO THE CROSS)미니스트리가 주관한 2012 미주 동부지역 청년, 청소년 연합 "뉴욕을 위한 예배모임"이 지난 18일 아스토리아한인 감리교회(담임 이용보 목사)에서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급식하면서 열린 모임에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작은 교회 청소년들은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기도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필라델피아와 델라웨어를 비롯해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한인2세 청소년들이 참석해 급식하며 뉴욕과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했다.

T2C미니스트리는 미동부 지역교회들을 섬기며 필라델피아 비브리컬신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신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미 동부지역의 작은교회 청소년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신앙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강한 용사"를 주제로 열린 이 기도는 기도와 찬양, 말씀이 연속해서 이어졌다. 최낙훈 목사(포코노한인장로교회), 전문일 전도사(T2C 디렉터), 이대우 전도사(세드한인장로교회), 홍대권 전도사(그라이프교회) 등이 강사로 나서서 메시지를 전했다. 또 뉴욕의 백투위시 찬양팀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했으며 미

국을 방문 중인 한국 CCM 사역자 주리 자매가 찬양했다.

T2C를 이끌고 있는 전문일 전도사는 "이번 기도가 뉴욕을 위한 기도로 진행됐으며 비록 많은 인원들은 모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작다하지 않으시고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또한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매년 여름과 겨울에 작은 교회들(미주동부지역)을 위해 캠프사역을 하는 미니스트리로 비블리컬 신학대학원 한인 재학생들 위주로 결성됐다"고 소개했다.

동 미니스트리는 2010년 겨울 캠프를 시작으로 2011년 여름과 겨울 캠프 그리고 2012년도 7월 둘째 주에 뉴저지에 위치한 양지수양관(주단만 목사)에서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전 전도사는 "앞으로도 미주 동부 지역 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며 주안에 하나되는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들과 한인교회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제 17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 모습

제 18기는 3월1일부터 4주간 17기 목회와 선교위한 컴퓨터 무료강좌 종료

미주기독교방송(KCBN)과 씨존(C-Zone)이 공동주관한 제 17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가 16일 종료됐다. 지난달 19일부터 5주간 KCBN 회의실(프라미스코회 8층)에서 열린 컴퓨터강좌는 '음악, 사진, 비디오 촬영/편집하기' 등의 주제로 기초반과 중급반 구분 없이 한 클래스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음악과 비디오 편집 등 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법과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사용법, 포맷 및 노트북의 과잉기능의 고장과 자판 수리 등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유원정 기자)

릭 샌토롬 약진...보수는 살아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발표된 지역 여론조사에서 샌토롬의 지지율은 34%, 롬니 지지율은 25%로 조사됐다. 만일 미시간 경선에서 샌토롬이 완전을 찍으면 공화당 경선관도가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국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샌토롬의 기세가 10개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다음달 6일 '슈퍼화요일'까지 이어질 경우 롬니 대세론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샌토롬에게도 약점이 있다.

롬니 대항마로서는 부상했지만 정작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쟁력이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이슈 등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바

람에 중도파는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하고 있다.

결론으로,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신인이자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공화당의 매캐인 후보를 물리친 이유는 바로 진보 노선에서 '미국의 변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념과 정치 노선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 진영은 '보수주의자다운 보수주의자' 후보를 원하고 있다.

물론 본선 경쟁력을 의식하다보면 성공한 기업인이자 주지사를 지낸 롬니가 대세이지만 롬니에게는 없는 보수주의의 진정성을 샌토롬 후보는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샌토롬 후보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and NJ.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and various church listings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 LA 한인타운 선거지구 '13지구' 로 재서명해야

## 변영익 남가주교협 회장 인도로 기도회도 열어

LA 한인타운 선거지구 단일화가 13지구 선거구 편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남가주교협,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한미연합회, PAVA 등 관련단체들은 17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지구로 쪼개진 한인타운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이 가능해졌고 통합 선거구는 13지구로 편입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올림픽과 웨스턴, 버몬트와 5가에 위치한 캘러리아 백화점에서 한인타운 통합선거구 13지구 편입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한미연합회(KAC)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펼친 이번 서명운동에는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여했으며 22일에는 LA시청에서 열린 최종 공청회에 한인커뮤니티 관련단체들과 한인들이 참여해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그동안 남가주교협 등 관련단체는 4개 지구로 분할돼 있는 한인타운을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것을 위해 많은 한인들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 한인타운선거구 단일화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교협 주관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각 교회에서 모인 서명 수는 6499표. 그러나 13지구로 선거구단일화로 흐르면서



LA 한인타운 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13지구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6499표의 서명용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22일 최종공청회까지 촉박한 시간 내에 13지구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서명용지에 다시 서명을 해야 했다.

남가주교협 박세현 총무는 "초창기 서명운동 당시 '한인타운의 단일화'만 요구했으나 단일화 된 한인타운 선거구의 13지구 편입을 요구하게 돼 내용 수정이 불가피했다"며 "캠페인 초창기에 받았던 서명지를 선거구재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재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협 변영익 회장은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시의회와 선거구재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겠다"며 한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그레이스유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은 "3월부터 선거구재조정위원회가 폐지돼 모든 업무는 시의회



남가주중앙교회에서 열린 박만서 장로 임직예배

# "주 앞에서 부족함 없는 자 되라"

## 남가주중앙교회 박만서 장로 임직예배

남가주중앙교회(담임 박종대 목사)는 박만서 장로 임직예배를 19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

박종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임직예배는 임수석 장로의 기도, 신명철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미주합동총회장 전요한 목사(예수사랑교회)가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자'(벧전 5: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전 목사는 "장로는 교회의 기둥이자 지도자이다. 지도자의 직분은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주 앞에 서 있을 때 칭찬받는데 부족함 없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 넘어가므로 그 전에 다시 한 번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가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18일 공개한 수정안에 따르면 한인타운 중심부 북쪽 경계선으로 배럴리 블러바드까지 10지구에 포함되며 웨스턴 가 서쪽 방면은 4지구로 올림픽과 노먼디 남동쪽 지역은 13지구로 분리시켰으며 한미변호사협회(KABA, 회장 제인옥)는 최종 지도안 확정시 한인들을 비롯 아시아인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결정될 때를 대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KABA는 CRC가 연방법에 의거한 아시아 주민들의 선거구 설치 요구를 무시하고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한인 커뮤니티에 불법적인 행위를 조사해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세계기도일 예배

교회여성연합회(회장 최미란 권사)가 주관하는 세계기도일 예배가 3월3일(토) 오전 10시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너희는 정의의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2012년도 기도국으로 선정된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며 이날 말씀은 교회여성연합회 고문목사인 황에스터 목사(미주총신성경교회 담임)가 맡는다.

▲문의: 최미란 권사 (714)331-6048

### 남가주한인목사회 3.1절 연합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3.1절 연합예배를 3월1일(목)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해성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3.1절 연합예배는 본 교회 담임인 김해성 목사가 맡는다.

▲문의: (714)308-7308, (213)479-9491

### 글로벌 메시아 여성 합창단 공연

글로벌 메시아 여성 합창단(지휘 노영건 선교사) 주최로 열리는 메시아 찬양예배가 26일(주일) 오후 5시에 남가주빛나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린다. 출연진은 LA 메시아 여성 합창단, 사우스베이 여성 합창단, 오렌지카운티 여성 합창단이며, 거룩운동으로 시대를 깨우는 New Spirit Movement를 통한 Holy Life, Holy Family, Holy Nations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714)401-9874

# 오페라캘리포니아유스앙상블 창단

지난 22년 동안 한인 2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온 오페라캘리포니아(단장 노영건)이 클래식 음악과 CCM클래식을 함께 병행하는 하는 오페라캘리포니아유스앙상블(Opera California Youth Ensemble) 창단, 3월 1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4월 1일 Artesia-Cerritos 다민족교회 초청공연, 7월 14일 OCY합동공연, 8월 서울 부산 제주 등 한국 순회공연과 뮤직센터와 타 커뮤니티를 향한 아웃리치 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



오페라 캘리포니아 소년소녀 단원들

단장 노영건 씨를 비롯해 기타리스트로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준 뮤직디렉터, 바이올린으로 여러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조유리 지휘자가 이끄는 동 앙상블에 뜻을 같이할 단원들을 2월과 3월, 7월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오디션을 갖게 된다. 모집부문과 인원은 남/여 바이올린(5명), 첼로(3명), 플루트(2명), 클라리넷(2명), 기타(1명), 베이스(1명) 기타(1명), 드럼(1명)등을 모집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323)574-2747 혹은 이메일 operacal@yahoo.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의를 마치고 라플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피종진 목사 참석자들.

# "감사와 복종,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라"

## 남가주목사회, 피종진 목사 초청 세미나 성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주최한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자의 모범' 세미나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라플린 소재 홀라호텔에서 피종진 목사를 강사로 진행됐다.

남가주목사회 소속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본 세미나에서 피종진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란?' '지도자의 자세' 등을 설명하며 "모범된 지도자의 자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복종과 충성으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자신에 대하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고 이론보다 실천을 앞세워야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는 이해와 관용이 있어야 하며 사랑과 진실함으로 은혜를 끼쳐

야 한다. 또 교회에 대해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하며 교회의 평화와 안위를 위하여 불평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적극적인 협력과 순종의 자세로 일하라"고 권려했다.

2박3일 동안 진행된 본 세미나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역들로 지친 목회자들은 힘을 얻기도 하였으며 피목사의 명강의를 통해 재 도전받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본 세미나 강사로 초빙된 피종진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말씀은 전하는 내 자신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세미나"라고 말하며 본 세미나를 주최한 목사회 임원과 참석자들이 치하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 남가주왕성교회 설립3주년 맞아 임직감사예배

남가주왕성교회(담임 안경찬 목사)가 19일 오후 4시 설립 3주년을 맞아 장로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안경찬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임직예배는 김일락 목사(예장미주총회합동서기) 기도와 진성백 목사(나성양문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진 목사는 디모데전서 6:10-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일군의 원칙을 모르면 혼돈이 오게 된다.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일군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경찬 목사는 임직을 받는 김두현 장로에게 장로서약, 안수를

하고 남가주왕성교회 장로가 됐음을 공표했다. 특히 이날 최희희 권사와 정기철 집사의 헌신을 치하하며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편연 최순길 목사, 축사는 추창호, 원성택 목사가 전했으며 안태문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남가주왕성교회는 3년전 안경찬 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2500 Wilshire Bl. #700에 소재해 있으며 주일예배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 15분에 드리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819-881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임직식을 집행하고 있는 안경찬 목사.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http://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p><b>세계로 나아가는 교회</b></p> <p><b>서부(CA)교회안내</b></p>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병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권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나성일민문교회</b></p> <p>담임목사: 박현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나성서부교회</b></p> <p>담임목사: 이경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나침반교회</b></p> <p>담임목사: 민경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김원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남가주리더교회</b></p>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남가주사랑교회</b></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대표: 정영자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드림교회</b></p>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미주왕국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송경명</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방주선교회</b></p> <p>담임목사: 박용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매달인인교회</b></p> <p>담임목사: 손인석</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맨큐버빌라메이교회</b></p> <p>담임목사: 임진택</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택</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세계비전교회</b></p> <p>담임목사: 김재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새창조교회</b></p> <p>담임목사: 정병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안디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지용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얼바인침례교회</b></p> <p>담임목사: 한종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오렌지카운티제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임영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원서크리스천교회</b></p> <p>담임목사: 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인랜드교회</b></p> <p>담임목사: 박진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장대교회</b></p> <p>담임목사: 이준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p><b>코너스톤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3:30</p>



# 한기총 임원진 양화진묘원 헌화

## 홍회장 “회원교단과 소통, 위상정립 방향 찾을 것”

“고맙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선교 사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홍재철 18대 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23차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하고 선교사들에게 빛진 마음을 쏟아냈다. 이들은 양화진에 묻힌 145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 무덤 중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묘역에 헌화하고 한기총 발전을 위한 도우심을 구했다. 또 복음 전파와 불우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도 잊지 않았다.

헌화에 앞서 한기총 서기 남태섭 목사의 사회로 양화진의 역사와 선

교사 묘원에 대한 설명과 기도회를 갖고, 온갖 꾀박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희생한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14일 취임한 회장 홍재철(69·부천경서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기총의 위상정립과 화합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대표회장 후보 자격시비 등으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온 그는 누구보다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동 지는 보도했다. 예정통합 등 비대위 측의 불법적 처리진 총회 속회에서 합법적으로 2년 임기의 대표회장에 취임한 그는 내홍을 싸매고 화합을 끌어내 한기

총의 위상을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WCC 총회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홍 목사는 WCC 총회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기총은 지역적인 문제로 이끌어가는 단체가 아니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종합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교단 연합기구인 것이다. WCC 문제는 40여개 위원회의 한 분야일 뿐이다. 특히 이단 문제는 철저히 대처할 생각이다. 분과별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 대표회장은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된다. WCC 문제는 기독교계 보수와 진보 사이를 금가게 하는 동기 부여도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번 부산총회는 국

# 예정통합 100주년 기념사업

## ‘부흥의 기쁨으로 100년, 세상의 소망으로 100년!’

[미선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박위근 목사)이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예정 통합은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로 출발했으며, 예정 통합과 함께 한국장로교회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교단이다. 현재 64개 교회에 8162개 교회, 285만2000여명의 교인이 소속돼 있다.

예정 통합은 ‘부흥의 기쁨으로 100년, 세상의 소망으로 100년!’이라는 주제아래 지역별 100주년 기념예배, 총회 100년사 출간, 총회 역사박물관 건립 등 실제적인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외형보다 내실을 강조하는 박위근 총회장의 의중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교단은 서울 삼양경기장에서 14

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임원회 결의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노회별 대회로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목사장로기도회, 기도한국 대회 등 대규모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예정 통합과 달리 예정 통합은 지역별 대회를 개최하고 역사적 자료와 박물관을 후대에 남기는 작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단은 오는 4월부터 12개 권역별로 예배와 영성, 선교, 교육과 목회, 디아코니아, 신학, 생명과 환경, 교회갱신과 회복 등 7개 주제아래 노회연합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또 지난 100년 역사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세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600페이지 분량의 한·영 ‘100년사’를 내놓

# 부산은 ‘신천지와의 전쟁’ 중

## 피해급증에 지역교계 연합해 대책기구 조직

부산 교계가 이단·사이비 침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이 나섰다.

부산성서화운동본부(이사장 정필도 목사, 본부장 최홍준 목사)는 16일 오전 부산 좌전1동 부산제일감리교회(담임 정찬석 목사)에서 ‘이단 신천지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최근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실상을 공개했다.

부산 교계는 이를 위해 먼저 ‘신천지 대책기구’를 조직하기로 했다. 대책기구에는 법률팀과 사이버팀, 정보수집팀, 언론홍보팀, 상담팀 등을 구성해 정통 교회와 성도들이 신천지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개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이단·사이비 대책을 종합하고 교회간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등 이단·사이

비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다는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부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 300여명은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신현욱(전 신천지 교육장), 지명환(전 부산 야고보지파 교육강사), 주은혜(가명·전 신천지 부녀회장)씨의 신천지 포교 전략과 대처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강사들은 최근 신천지가 포교에 대한 교육 지침서를 만들고 기성교회와 신학대 등에 침투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다며 개교회가 상대할 것이 아니라 교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발간한 이단·사이비연구 종합자료에 따르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구원교,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와 함께 가장 활

을 예정이다.

‘기념책’도 발간한다. 백서에는 교육과 신학, 교회일치, 역사와 통계, 사회봉사 등의 주제로 지난 100년간 총회가 힘써온 기독교 교육과 교단 신학발전, 국내외 에큐메니컬 운동,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봉사 활동 등을 담게 된다. 개혁교회의 복음주의 신학사상을 담는다는 취지에서 성경표준주석 발간도 예정돼 있다.

역사박물관 건립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정점에 있다. 교단은 총회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 주차장 부지에 지상 9층 지하 3층, 연면적 6000㎡(1815평)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건축비는 185억으로 추산되는데, 오는 9월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초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의 지분 40%를 대폭 늘려 총회장립 100주년기념관으로 건물 이름을 개명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교회 일치 정신을 훼손할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다. ‘교주 이만희=보혜사’라는 교리가 대표적이다.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 재림은 우리 단체에서 이뤄진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으며 무료로 성경공부를 시켜 준다며 정통 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한다. 1995년 예정 통합과 합동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고 이후 예정 고신 합선, 기성 등에서도 이단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홍준 목사는 “부산에서 이단·사이비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단 총력을 기울여 신천지가 부산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각 교회마다 특별예산을 편성해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목사는 또 “지난 3년 동안 뇌교육을 강조하는 이승현 집단과 싸우면서 검찰 조사를 5번이나 받았지만 모두 이겼다. 교계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제적인 정치 행사다. 보수진영의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보내 달라.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대회이나 성공하길 기원한다. 한기총은 2014년 세계복음연맹(WEA) 개최에 200개 국가 기독교 대표들을 대거 초청, 크게 성장한 한국교회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다.”

또 북한선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북한선교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정부가 우리의 대북 선교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자매결연을 하는 등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를 위해 세계복음연맹(WEA)과도 협력할 것이고 북한의 집단농장에 옥수수심기운동(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평 옥수수 심기)을 벌여 북한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전을 폐기했다.

총회장립 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달의 부총회장은 “기념사업을 기점으로 지난 100년 역사를 정리하고 다가올 100년 민족교회로 성숙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오는 9월 총회기간 중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복음을 전해준 형제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축제분위기 속에서 총회장립 기념예배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 ‘주 5일제 수업’ 3월 전면 시행

## 한국교회 새 목회패러다임 마련

[미선라이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의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회마다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선교 전문가들은 교회의 철저한 준비만 된다면 주5일제가 감소하고 있는 교회학교에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4년 주5일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 목회자들은 교인출석수가 격감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주말 레저가 보편화 되던 주말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고 사회 전반에 세속화의 경향이 확대되면서 복음화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5일제는 한국 사회에 정착했고 교회들도 각 형편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 별양동 과천약수교회는 토요일 새벽예배를 열고 있다. 청소년들이 엄마·아빠와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공부하고 인생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배우고 있다. 부모와의 친밀한 대화는 성경적 삶의 원칙 전수로 이어진다. 1시간가량 진행되는 이 학당은 부모가 덕담을 건네면서 자녀를 격려해주는 것

# ‘기도한국 2012’ 영적 각성 불지핀다

## 9월2일... 예정합동 100주년 기념행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가 교단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도한국 2012’ 대회 윤곽이 나왔다. 예정 합동은 지난 2008년부터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매년 수만명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회를 개최해왔다.

총회100주년기념 기도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17일 “기도한국 대회를 오는 9월 2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을 우선적으로 섭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기도회가 총회설립 100주년과 총선,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회개와 각성, 영성 회복, 복음의 희망제시에 집중한다는 방향성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난주간에 맞춰 세이레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동 설교문과 기도문이 실린 기도회 자료집을 통해 교단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집 권두설교는 소강석(새에덴교회) 이규왕(수원제일교회) 권성수(대구 동신교회) 이상복(광주 동명교회) 목사가 맡기로 했으며, 다수의 교단 목회자들이 총회설립 100주년 감사, 신학정

제성 강화, 복음의 외연확장, 주요절기와 관련된 설교를 서술하기로 했다. 200쪽 분량의 자료집은 다음달 12일 전국 1만1450여개 교회에 발송된다.

위원회는 목사장로기도회가 끝나는 5월부터는 136개 노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회별, 권역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교단은 기도한국 대회에 앞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를 100주년 특별 기도주간으로 설정해 기도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회 설교자와 주관 방송사는 추후 선정하기로 했다.

소강석 기도한국준비위원장은 “올해 기도한국 대회는 지난 100년의 교단 역사를 회고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장자교단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회가 교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부흥을 꾀하는 영적 각성운동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철 예정 합동 총무도 “주님의 사역은 크든 작든 기도 외에는 이뤄질 방법이 없기에 교단은 100주년 기념사업 중 기도한국 대회를 우선순위로 설정해 놓았다”면서 “통렬한 회개와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기도회를 통해 교단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있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해 컴퓨터 교육과 아침영양반을 개설하고 있다. 성도들은 이 시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서울 방이동 오륜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을 외부 선교단체인 라이즈업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일임, 교계에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다. 수면·경건·공부·태도 등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자기 주도형으로 이끌며 대학생으로 구성된 선배 멘토들이 이를 돕고 있다.

교계도 주5일제 대안마련을 위한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육부와 총회교육위원회는 13~15일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교육목회 지도자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 통합은 교회학교 MAP(Mission Assistance Program) 세미나를 지역별로 열고 토요일, 토요일 독서활동 등의 주5일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회교육 전문가들은 60년대 들어 주5일제를 실시한 유럽 국가의 경우 종교 활동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를 대비한 신(新) 목회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주5일제라는 시대적 도전은 우리 한국교회에 보다 온전한 목회 그리고 특별히 본격적 교육 목적의 확립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영양

뉴욕코탕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문의: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6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3201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sbm.or.kr

SBM이 치방을 써왔습니다.

SBM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EVANGELICAL MOVEMENT

서울 [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미주신학대 대표교인 박준성 목사와 함께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본 선교회, 신학교, 기도회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Yemami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5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행각)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이○표시를 하세요.



# LA서 홈리스 사역했던 우연식 목사 재이주

## 서울역서 '드림시티' 설립 홈리스 재활 도와

LA에서 2005년부터 10년까지 홈리스 사역했던 우연식 목사가 한국으로 재이주, 2011년 4월부터 서울역 13번 출구 옆 '드림시티'(홈리스센터/교회)를 설립하고 홈리스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드림시티는 70여 평의 공간을 24시간 오픈해 잠자리를 제공하고 매일 300-4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이발, 세탁, 의료 진료와 함께 전화, 팩스, 컴퓨터(인터넷 10대), 영화상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노숙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우연식 목사는 드림시티를 설립하며 몇 가지의 목표를 내걸었다. '365일 24시간 오픈하는 교회,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교회, 구제사역

이 중심인 교회, 잘 떠나보내는 교회, 운영/재정이 투명한 교회'이다. 특별히 우 목사에게 2012년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2012년에는 무료병원과 2교대 숙소, 카페, 그리고 족구장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외국의 교회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 학생/청년들이 서울에서 단체로 특별한 활동을 할 경우 저희 센터에서 잘 수 있도록 제공하기를 원한다.

미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해왔던 우 목사는 미국 동포들이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다음은 우목사가 보내는 선교사역 소식이다.



'드림시티'에는 꿈이 있습니다...

한겨울의 드림시티. 추운 날씨지만 노숙인들이 잠시나마 평화롭게 머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1층과 지하층에 90-100여명이 머물러 휴식을 취하고 하루 이용자는 총 300-400명에 이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가운데 지난해 4월 오픈한 드림시티는 장소를 추가 임대하고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추가하며 노숙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드림시티 지하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드림시티 사역의 핵심으로 두고 성경공부와 노래, 영화감상 등을 시작으로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월에는 바둑, 장기, 등산, 음악밴드 등 다양한 소그룹을 추가로 만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노숙인들이 함께 모여 가족처럼 서로가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지지, 격려하는 가운데 삶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12년 드림시티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2, 3층을 추가로 임대하는 것입니다. 무료병원의 설립과 카페, 그리고 2교대로 잘 수 있는 숙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35평의 공간(3층)에 무료병원을 만들어 노숙인과 외국인노동자 및 빈곤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7평의 공간에 50명이 장기, 바둑과 함께 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다른 17평의 공간에 3층 침대를 만들어 1회 50명 정도가 하루 2교대로 잘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족구장과 탁구대를 설치, 지친 생활 가운데 휴식과 함께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림시티 사역의 최종 목표는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단절되어 삶의 목표 없이 방황하는 노숙인들에게 가족과 같은 의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성경공부, 노래, 영화 바둑 등 노숙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점차 성장기의 깊은 상처까지 나누며 삶에 있었던 미숙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고치는 가운데 사회로 복귀할 때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홈페이지: www.dreamcity.or.kr  
▲연락처:(한국)010-9369-5318 (LA)213-785-2248

# 2012년 세계이슬람 단편 뉴스

## 이슬람-기독교 갈등



전호진 박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

It's a Mad, Mad Mad, Mad World!

아래 사진은 2012년 뉴스위크지 특집호입니다. 금년 세계를 '미친 세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중동을 전망하는 '중동의 아침'을 필두로 중국, 쓰나미 이후의 일본, 구라파의 경제 위기, 미국의 경제 전망과 부드러운 대중동 정책 그리고 아프간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의 미래를 다룬 '미국 없는 바그다드'와 리비아의 현 상황을 특집으로 내놓았습니다. 모든 전망 기사는 밝음보다 어두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중 3-4개의 기사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중요한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슬람 세계의 뉴스를 보도해야 합니까?

BBC, CNN, 싱가포르 뉴스 심지어 중국의 뉴스들까지 이슬람과 전 세계의 테러 뉴스를 객관적인 분량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된 뉴스들이 여과, 차단되어 정확한 내용들이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국은 세계의 상황을 공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세계기독교공동체는 박해받는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그 믿는 자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 교회는 거룩하거나 세계적입니다. 세계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식을 알고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슬람 세계에 관한 뉴스를 언론과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권리를 요구하는 기독교인들-인도네시아

2012년 1월29일, GKI의 멤버들과 200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은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 궁 앞에서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에게 예배할 권리를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항의를 벌였다. 인도네시아 기독교 교회 멤버인 GKI는 강경 무슬림들에 의해 여전히 박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방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GKI의 대변인 Bona Sigalinging은 "2010년 이후 교회가 문을 닫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Indonesian Muslim Communications Forum과 Islamic Reform Movement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항의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어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슬람의 샤리아 법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인도

지난 주 카슈미르 주정부부는 3명의 목사를 추방하고 복인도교회가 운영하던 2개의 학교를 점수했다. 추방된 세 명의 목사 중 2명은 복인도 교회의 목사였고, 나머지 1명은 가톨릭의 선교사였으며 추방 전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현재는 카슈미르 계곡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80년대 말 카슈미르에서 일어났던 힌두인 추방 사건과 유사하다. 인도 북부 지역인 카슈미르는 90% 이상의 주민이 무슬림인 지역이다. 당시 카슈미르에 30만명의 힌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군대와 이슬람 테러 집단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

했다. 대부분의 테러 집단은 파키스탄의 탈리반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전의 주 정부는 극단적인 이슬람 그룹들에 대해서 무기력한 입장을 취하긴 했어도 힌두인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현 주정부는 아예 종교적인 억압에 대해 굴복당한 것처럼 보이며 샤리아 법정에 모든 힘을 넘겨 버렸다.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샤리아의 통치를 용납한 이번 사건에 대해 기독교 인권 단체들과 인도 기독교 협의회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슬람-기독교 갈등 재점화: 이집트

이집트 선거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하원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적 정부를 약속하고 있다. 물론 외신은 군부와 마찰우려를 보도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월 26일 남부지방에서 콕틴(콕틴 기독교도) 2명이 괴한들의 총격에 사망하였다. 이집트 경찰이 따르면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600km 떨어진 바구라라는 마을에서 콕틴 부자가 그들의 가게 앞에 앉아 있다가 괴한들 총격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자의 피살 소식이 알려진 뒤 인근에 있는 마가야 함마디시에서 콕틴 교도 1500명이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집트의 구교인 콕틴 교인수는 이집트 전체 인구 8000만명 중 6-10%를 차지한다. 이들은 다수 무슬림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람 내 강경파를 향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튀니지

이슬람 내 다양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간 갈등뿐 아니라 이슬람 내 강경파를 대상으로 하는 충돌도 가시화되고 있다. 재스민 혁명의 발상지인 튀니지는 지난 1월28일 시민 8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슬람 강경 조직 살라피스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연합 뉴스가 보도했다. 살라피스트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신정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자 이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우리는 전체주의를 몰아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광신도들에게 맞서자"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CBS는 전했다.



10대 세 딸 "명예살인":캐나다

캐나다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가족이 친가족 집단 살해 혐의로 종신형 평결을 받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1월29일 첫째 부인과 딸 3명 등 가족 4명을 운하에 빠뜨려 죽인 혐의로 모하마드 사피야(58)와 그의 둘째 부인 투바 야흐야(42), 이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메드(21) 등 3명에게 '일곱 살인죄' 평결을 내렸다고 현지 뉴스통신 '캐나디언 프레스'가 보도했다.

아프간의 사업가였던 사피야는 1992년 가족을 데리고 고국을 떠나 파키스탄, 두바이 등을 거쳐 2007년 캐나다에 정착했다. 그러나 아프간 전통과 이슬람 가치관을 고수하는 아버지와 자유분방한 서구 문화에 동화한 10대 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갔다. 딸들이 아버지의 허락없이 남자 친구를 사귀고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는 등 이슬람 율법을 어겨며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충돌을 피해 여성 섬터로 피신한 딸들을 보며 가족들이 살해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매년 5,000여명의 여성이 이러한 명예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7-7721, Fax: (02)327-829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Tel: (031)327-6794-42 군포시 군포동 470-42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경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27-6794-42 김포시 김포동 470-42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Tel: (031)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돈돈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후 11: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 (031)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로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장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준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사여연교회</b> 담임목사: 소경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경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8:00 Tel: (02)327-6794-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4)



## 1. 성격-교회중심교육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난 그 첫 번째 성격인 “교회 중심의 교육(church centered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한인 교회 기독교 교육의 현재적 모습을 서술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의 면면들을 그대로 모두 다 행할 수도 못할 당위성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맞는 우리 나름의 기독교 교육의 면면들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미래적 지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 시켜온, 그래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 한인 교회의 “교회 중심의 교육”을 잘 가다듬고 성실히 수행하는 일과 “교회 중심의 교육”이라는 성격이 갖는 장점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곧 우리 한인 교회가 또한 “교회 중심의 교육”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기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인 교회들을 섬기는 모든 목회자님들과 특히 그 교육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한

국 교회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에 일반적인 다른 신학교들에서 가르치는 관점과는 다른, 한인 교회의 삶의 상황과 관점을 가지고 그 교육에 임하는 신학교육의 장이 한인 교회의 장래를 위해, 그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 꼭 염두에 두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활발하게 성심오도 사역에 임하고 계시는 한인 목회자들의 재교육의 장으로서의 필연적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신학교육기관들이 잘 마련되어져서, 중점적으로 한인 교회의 역사, 구조, 행정, 교육, 실천 등에 대해서 배우고, 한인들에게 맞는 성경 해석과 신학들을 함께 고민하고, 한인 1.5 세, 2세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면, 참으로 아름답게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 한인 교회의 교육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실적으로 한인 사역에 소명을 두었으나 언어나 금전적인 이유로 미국 내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교육의 문호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 개 교회나 지역 연합으로 “신학교육의 장” 마련 한인 목회자 재교육의 장... 언어 재정문제도 해결

개, 앞으로 더욱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제안들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먼저 그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번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개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학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미국 교회가 교단별로 신학교들을 세우고 그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 한인 교회가 굳이 그 방식 그대로 본받아 행할 당위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너무나 훌륭한 그래서 한국에서도 애를 써서 그곳들로 유학을 오고자 하는 많은 신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한인 교회가 신학교를 세우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안 드리는 “개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 사역자들을 위한 신학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상충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그 신학교육의 장이란 현존하는 신학교들과 같은 모습, 성격, 제도를 갖는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는 우리가 익히 아는 학위를 수여하고 목사 안수를 위한 자격을 주는 신학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지는 우리 모두 함께 더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이는 한인 교회들을 위한 신학교육의 장으로서, 한인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중점으로 하는, 혹은 열심으로 교회 교육과 사역에 헌신코자하는 뜻 있는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개 교회 중심의 특화된 교육기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의 삶의 자리는 다른 여타의 미

개 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세워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인 교회라도 각각의 개 교회들은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삶과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으며 또한 독특한 개별 교회들만의 정서, 문화, 역사에 따라 그 관심과 삶의 해석이 다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성과 다양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신학교육의 형태는 바로 개 교회 중심의 신학교육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은 개 교회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신학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아주 적절하고 고무적인 교육의 방법이지만 작고 형편이 어려운 교회의 경우에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인 그저 꿈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당위성과 이상만 가지고 실현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과 자원이 풍부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소유의 건물도 있어야 하고, 좋은 교육자들을 초빙할 수 있는 재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한인 교회들이 각각 이러한 신학교육의 장을 둘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일단 출발은 비슷한 정서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뜻있는 교회에서 구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주변 교회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게도 이미 이러한 일의 시작이 일구어져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계속)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교회)

### 월 이때로부터 (마16:21-23)

21절에 주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수난에 대해 가르쳐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때를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이전에는 수난에 대해 간접적 혹은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마9:15), 이제 베드로의 공개적인 고백이 있자, 메시아 사역의 최대 비밀인 십자가 수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사에는 모두 때가 있

습니다. 성경은 “천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전3:1)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굴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안을 정결케 하고 그릇의 크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릇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때를 따라” 베풀어주시실 것입니다.

### 화 제자도 (마16:24-28)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2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 참 제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옛 피조물로서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좇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야할 방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제자는 자기 부인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를 오르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인 여러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수 사명 (마17:1-13)

“옛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1절). ‘옛세 후’는 바로 앞서 기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었던 6일 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자 중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나 겔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도 이 세 사람을 동행시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 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형제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 힘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우쳐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훈련됩니다. 사명 전에 앞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 목 겨자씨 믿음 (마17:14-27)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20절). 여기서 ‘겨자씨’와 ‘산’은 다같이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소재들입니다. 작지만 생명력 있는 겨자씨는 환경적 조건만 갖춰지면 자라서 새가 날아들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산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난제를 상징합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장애나 난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태산도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 금 양치기 (마18:1-14)

12절을 보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둔 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자 해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또 사랑하기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소자일지라도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요21:15-16).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양 무리의 주인이 아니라 일개 양치기임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지도자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도를 ‘내 양’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양들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도록 주님으로부터 임명된 일꾼들일 뿐입니다. 성도 중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차별하고 소홀히 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주님은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고전8:12).

### 토 합심 기도 (마18:15-20)

위대한 기도는 주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19절). 성도간에 마음을 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에는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그리스도와 등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허물지 못하는 마음의 벽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합심하여 기

도하는 일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교회와 같이 모범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구성원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http://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령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흥기도, 찬양의 초대, 찬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형,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영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대위포인트 중점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지유 영성(Today's Prayer Heal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8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 결제 후 이메일([kcdc@chollian.net](mailto: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 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 예배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배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배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제27회

#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발행인 **강영준 목사**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주최: **미주크리스천 신문**

강사



**김용도 목사**  
• 금란교회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상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승용결 목사**  
• 신천교회  
• 현대교회장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승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교회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명		
소계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온라인등록** 웹사이트 [www.chpress.net](http://www.chpress.net) 를 방문하셔서 개인정보와 교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18만원) (\*선착순 마감)(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24만원) | 한국현지등록: 50불(6만원)(숙박제외)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02)436-5770  
- 등록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279-910002-91105), 예금주: 금란교회, 입금자명 옆에(세마나)를 기재해 주세요.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905불+Tax(Senior 815불+Tax)-아시아나항공  
- LA 서울 왕복 항공료: 876불+Tax(Senior 786불+Tax)-아시아나항공  
- 한국 왕복 항공과 3박 5일 캄보디아 (양코르와트 관광 +항공), 모든 Tax포함 1,560불(뉴욕, LA 출발)  
- 담당자: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제6차 중,남미 선교대회 및 단기선교



## 선교대회 취지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중,남미 도처에서 선교에 진력하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 원주민 목회자 들을 초청하여 위로, 격려해 한인선교사 들과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현지 원주민 목회자들의 질적 향상과 복음적 바른신학 강화를 통해 남미 선교전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현지인 목회자들과 협력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5차에 걸쳐 오대양 육대주를 순회하며 대회가 개최되어 일본은 물론 과테말라 도미니카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3회째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선교대회와 단기선교 사역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성령이 주관하셔서 남미에 기적이 열매가 넘칠 것이며 참가자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함은 물론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품게될 것을 확신한다

주 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16:9)

- 일 시 : 2012년4월16(월)저녁-20(금)새벽 (4박5일)
- 장 소 : Av.Carabobo 1253Cap.Fed.Argentina (Tel:5411-4631-1788)
- 주 최 : WVS(월드비전신학대학), FEMO선교회, WEC 초교파 남미선교대회준비위원회
- 후 원 : KWMC, 크리스찬타임스,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찬신문

- 주강사 : 서 삼정 목사(KWMC의장/아틀란타제일교회)  
이 승중 목사(몽골국제대학이사장/KWMC의장/예수마을교회)

### ●특강강사



**박영희 목사**  
-전한국총신,대신대총장  
-WVS총장



**최광언 목사**  
- 남미신학교학장  
- 제일장로교회IND



**김웅철 목사**  
- 전 MBC 탤런트  
- FEMO선교회장  
- 순복음시온성교회



**이종석 목사**  
-WVS 운영이사장  
-과테말라사랑의교회



**이정남 목사**  
-NEA선교회장  
-엘파소소망교회  
-C국신학교학장



**오용주 목사**  
- 전CRC교협총회장  
- 디트로이트한빛교회



**서옥자 사모**  
- 아틀란타 제일교회



**이수형 목사**  
- 기하성  
- 흥천아름다운교회  
- 기하성총회신학원 교수



서삼정 목사



이승중 목사

## 참가신청 안내

**등록처**  
대회집행위원장 : 김현국 목사 (등록접수처)  
Rev, Paul H. Kim / Address : 841 N. US Hwy 15 Dillsburg, PA 17019  
Tel : 717-432-9035 / CP : 717-576-5370(paulkim127@yahoo.com)

**문의 및 연락처 : 실무대회장 강준원 목사**  
Rev, Joon Won Kang / Address: 5319 Fernhill Dr Charlotte, NC 28217  
Tel: 704-665-6243 / CP 803-665-1599 (cpmcpastor@yahoo.com)

**참가대상** : 교파를 초월해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가 할수 있음

**등록 마감일**  
1차) 2012년 3월 3일 / 2차) 2012년 3월 24일 (2차 등록시 할인혜택없음)  
1)등록비(식비 일인당 1식\$8)11식=\$90  
숙박비(1박)일인당\$20>4박=\$80=합계 \$170  
2)부부인 경우 1차 등록시 \$250 /2차 등록시는 부부도 동일함 \$340  
3)24시간 스낵,음료수,과일,등 무제한 제공함이다  
4)등록시와 함께 필히 체크로 납부해야 하며 불참시라도 일체 반환을 불허.  
5) Check Payable / To: FEMO / For : 남미선교대회 참가 등록비  
6)입국시 세관신고서에 기록할 주소는 대회장소 주소를 기입 바람.

**항공권 구입안내 및 관광안내**  
구입처: NY지구여행사 대표 권대비(Debbie Kwon), 각자 구입해도 무관.  
항공권 구입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가장 저렴함. 약\$ 정도  
Tel : 1-800-203-1518/212-594-3553(earthtravelny@yahoo.com)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브에노스 행 항공은 밤에(일일 1회) 출발(NY,GA기준)  
다음날 아침 7시-8시에 도착하니 가능하면 주일저녁 비행기로 출발 바람.  
한국여권은 무비자, 미국여권은 공항에서 비자를 받아야함.  
현지 날씨는 한국 초가을 정도.

**관광안내**  
▶ 1박2일 이과수폭포 관광 희망자는 등록시 신청해야 관광이 가능.  
(비용은 항공료 숙박 포함 일인당 약 \$600-700 정도)  
▶ 17일(토)은 시내 민속촌 관광, 주일은 모두 현지원주민교회 단기선교사역에 동참  
4/23(월)오전 이과수 폭포 여행후 24(화)저녁 귀국, 25일아침 미국 도착.  
▶ 폐회 후 20(금)-22(주)(3박4일) 체류하실 분의 숙식경비는 주최측에서 제공함  
예정. 등록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가능.

## 선교일정표

2012년4월16(월) 오후6시-7시 개최예배  
8시30 첫째날 저녁선교대회  
2012년4월17(화) 오전특강 9시-11:30 (통역) / 오후특강 2시-4:00 (통역)  
오후 8시30 둘째날 저녁선교대회  
2012년4월18(수) 오전특강 9시-11:30 (통역) / 오후특강 2시-4:00 (통역)  
오후 8시30 셋째날 저녁선교대회  
2012년4월19(목) 오전특강 9시-11:30 (통역) / 오후특강 2시-4:00 (통역)  
오후 8시30 넷째날 저녁선교대회  
2012년4월20(금) 오전 6시-7시 폐회예배 /  
# 폐회 예배후 단기선교 사역은 자원 하는자에 한해 실시  
2012년4월20(금)-22(주) 현지 원주민교회 목사들과  
한인선교사/대회참가자 합동 단기선교실시

## 조직

**고 문** : 박영희 목사(WVS총장) 고석희 목사(KWMC 사무총장)  
고인호 목사(PCA 코디네이터) 최광언목사(남미신학교학장)  
**명예대회장** : 서삼정 목사 (KWMC 의장 / 아틀란타제일교회)  
**대회지도위원**: 강세대 목사(PCA) 정을기 목사 (SBC) 김동욱 목사(예장합)

**공동대회장**: 김웅철 목사(FEMO 선교회장 / NC순복음시온성교회 / AG)  
이종석 목사(WVS 운영이사장/ 과테말라사랑의교회 / KAPC)  
이정남 목사(NEA 선교회장 / 엘파소소망교회 / KAPC)

**실무대회장**:강준원 목사(FEMO 이사장 / 열방선교교회/PCA-CKC증경회장)  
**부대회장** : 김영만 목사(FEMO 선교회 상임이사 / NC벨렐교회 PCA)  
안영섭 목사(GM 선교회장 / TN 크리스찬교회)  
**대회집행위원장**: 김현국 목사(WEC선교회장 / PA제일교회 / PCA-CKC증경회장)  
**대회총무** : 신동민 목사(FEMO이사 / NC목양교회PCA)  
**진행분과** : 차영창 목사(SBC / NC 열린교회)  
**예배분과** : 이응주 목사 (FEMO 이사 / NC매튜장로교회 ARP)  
**선교분과** : 임종백 목사(FEMO이사 / NC베다니교회 ARP)  
**안내분과** : 차규선 전도사(FEMO 이사, PCA)  
**음악분과** : 문정민 권사(FEMO 이사 / SC선교회교회 PCA)  
**섭외분과** : 지혜로 집사 (FEMO 이사 / FL색스한인교회)

**미국준비위원장**: 강준원목사(FEMO선교회 이사장 / WVS 국제홍보이사장 / 열방선교회)  
**현지준비위원장**: 최광언목사(남미신학교학장 / 제일초,중학교장 / 제일장로교회)  
**위원** : 김웅철목사(AG) 이정남(KAPC) 오용주(CRC) 정을기(SBC) 이응주(ARP) 홍종수(PCA)

**현지유치 위원회**  
**총괄본부장** : 양선옥 목사(아르헨티나 제일장로교회/ IND)  
**총무분과** : 위성열 장로 / 통역분과 : 윤창우 목사  
**영상분과** : 황창구 장로 / 봉사분과 : 최형섭 장로  
**동원분과** : 홍덕유 장로 / 취사분과 : 김희순집사, 이규옥권사  
**음악분과** : 이재준 장로

## 참가신청서(여권과 동일하게 기록요망)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동반 배우자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 CP:	E-mail:		
출석교회:	직분:		
교 파:	담당목사:		
이과수폭포 관광참가(여행비 본인부담) 예( ) 아니오( )			